



# **생명샘 (living Stream)**

Korean and English



Book 10 (2006)

**White Young Jeon**

**Cambodia Reformed Faith Institutes**

머릿말

## 목차

### 1.

## 1. 능력있는 기도(시55:1-23) 2006. 8.23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나 능력있는 기도를 구하는 까닭은 그것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약속 하시기를 부르짖으면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 신다(33:3)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배워 그 재미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능력의 기도를 드리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째, 원수의 압제와 위압에 눌려죽을 지경이 된 다윗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괴로운 날을 보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비둘기처럼 광야로 날아가고 싶은 현실도피를 생각하기 까지 했습니다.(1-3) 그렇게 답답한 까닭은 괴롭힌 원수가 가장 가까운 친우며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배은망덕을 당한 2의 마음은 탄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다윗에게 복된 기회가 된 것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키는 고난당할 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기치 않던 문제가 가까워서 일어난다 해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기회로 삼을 때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대로 성도가 환난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자기 소행을 살피게 되고 커가 열려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에 어느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는 복된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이런 중에서 열정적 기도, 중단 없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저녁. 아침. 정오에 하루 종일 기도한 것이지요. 기도는 실제로 하기 전에는 그 효력을 모릅니다. 소리 내어 하든 조용히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심경을 고민하고 탄식하며 다 토하였을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이는 하 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열쇠로 문을 열듯이 기도로 나가는 순간, 이미 문재 는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긴 기도야말로 위기에서 건짐  
받아 영원한 평강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 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약속 은 기도의 키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 다.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도가 됩시다.

#### 1. Powerful Prayer (Psalm 55:1-23) 2006. 8.23

The reason Christians seek powerful prayer anytime and anywhere is because  
through it, many problems are solved and unimaginable things happen. So,  
God promised Jeremiah that if he cries out to him, he will experience grace  
beyond imagination (33:3). David learned this prayer and is now enjoying its  
fun. How did you pray powerful prayers and what results did you get? first.  
David, who was on the verge of death under the oppression and coercion of  
his enemies, spent painful days in fear and trembling. He was so frightened  
that he even thought about escaping from reality, like flying into the  
wilderness like a dove (1-3) The reason why he was so frustrated was because  
the enemy who tormented him was his closest friend and someone who  
worshiped with him in the house of God. The heart of 2, who had been treated  
with ingratitude, was full of lamentation. However, this suffering became a  
blessed opportunity for David because it allowed him to pray to God with a  
broken heart. The key to prayer is usually something you learn to use when  
you are suffering. Even if an unexpected problem arises nearby, do not be  
discouraged and use it as an opportunity to come to God, and you will surely  
receive grace. As Elihu said, the reason believers are caught up in tribulation  
is because it is an opportunity for them to examine their actions, open

themselves up, learn God's lessons, and turn around, so it is a blessing that nothing can be thrown away. Second, David moved forward with passionate prayer and uninterrupted prayer. dinner. morning. I prayed all day long at noon. You don't know the effectiveness of prayer until you actually do it. Whether out loud or silently, you will experience His power when you come before God and worry, lament, and vent your feelings. Therefore, prayer itself is a power. This is because it is a place where you can experience the power of God. third. The moment you go out in prayer, like opening a door with a key, the problem is already solved. Prayer, entrusting all your burdens to God, is what allows you to be delivered from crisis and have eternal peace. The promise of the small becoming a thousand and the weak becoming a strong nation begins with those who use the key of prayer. Let us become believers captivated by the power of prayer.

## 2. 구원의 기도(시54:1-7) 2006. 8.26

다윗 신앙의 특징은 환난 중에서의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주님 이름만을 의지하던 그 믿음이 장년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 해 광야에 숨어있는 곳을 십 사람들이 고자질 하여 독안에 든 쥐처럼 3000명의 군대가 그를 포위하여 수색하는 절박 한 신세가 된 때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삼상26:) 그는 애절하고 원통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하심을 받았 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구원의 기도입니까? 첫째, 진정한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외인의 공격과 강 포자의 수색활동 앞에서의 위태로운 환경도 다윗에게는 하 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작이었습니 다. 주의 이름으로 구 해달라고하며 주의 힘으로 판단해달라는 절규는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 황이라도 성도는 손해가 없습니다. 도리어 값진 기도를 생산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연합하려는 영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뜬 구름 잡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질적인 구원을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아주 개별적인 구 원을 사모한 것은 그분과의 진정한 연합이 구원인 것을 알 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안에서의 진정한 연합을 얻기 위 해 전심으로 주를 찾는 열정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의 환희로 마쳤습니 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욕구는 찬양으로 나타났습니 다. 주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 하여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의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렸 습니다. 위급한 자리라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응답받은 자의 확신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큰 고난을 당하던 읍, 검은 가죽,



열기로 말라버린 앙상 한 뼈, 그 뼈가 쭈시며 그치지 않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가 점점 더 강하여진 것은 (욥28:28)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듯이 다 잃은 탄식 기도하는 가운데 벌써 놀라운 응답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환난당할 때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맛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 2. Prayer of Salvation (Psalm 54:1-7) 2006. 8.26

The characteristic of David's faith was revealed in his prayers during tribulation. The faith that relied only on the name of the Lord during the fight against Goliath was still evident even after reaching adulthood. Today's text is the prayer he prayed when he was in a desperate situation, with 3,000 troops surrounding him and searching for him like a rat in a cage because the Ziphites had told him about his hiding place in the wilderness while avoiding King Saul's pursuit. (1 Samuel 26:) He reported his sorrowful and grievances to God and received an answer. What is a true prayer of salvation? First, it started with genuine lament. For David, the precarious environment in the face of attacks from outsiders and search activities by strong spores was the beginning of prayer to God. The cry to be saved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o be judged by the Lord's strength was a pure prayer believing that the Lord is the only savior. No matter how difficult the situation is, the believers suffer no loss. On the contrary, it is an opportunity to produce valuable prayers. Second, there was a spiritual movement to unite with God. David asked God, who helps him, for actual salvation, not a vague expectation of catching a floating cloud. The reason I longed for a very individual salvation was because I knew that true union with Him was salvation. This is because only those who have been saved can have the passion to seek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in order to gain true unity in Christ. Third, he ended with grateful joy. The desire to become one with God manifested itself in praise. He offered a free offering of thanks to God, praising His name for His goodness and love. Even though it was a critical situation, his heart was filled with the confidence of someone who had received the answer. Job, who had suffered greatly, had black skin, a bare bone dried out by the heat, his bones ached, and even in constant physical pain, he depended only on God. The wisdom of fearing Jehovah became stronger and stronger through prayer (Job 28:28). As can be seen as a response, David has already received the amazing fire of response while he was lamenting and praying. When we go through tribulation, it is a blessed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true taste of salvation.

### 3. 진정한 회개방법(시51:1-19) 2006. 7.26

"죽어도 살겠다"는 부활신앙은 진정한 회개 현장에서 일 어납니다. 살인과 간음이란 천인공노할 죄를 범했던 다윗,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감으로 본 시편을 통해 참 회개의 방법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줍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첫째,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시퍼런 칼날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은 의의 빛 앞에 자기 죄를 비추어 볼 때 저지른 죄과로 중압감에 눌려있었으며 그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한 죄임임을 고백했습니다.(2-6)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덮고 싸매시는 그의 사랑과 자비를 주목함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7절에 우슬초란 속죄 깃물을 찍어 뿌리는데 사용한 속죄도구입니다.(민 17:) 이것을 구하는 그의 마음은 장차오는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 공로를 의지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죄를 시인해야합니다. 아무리 준비된 것도 내 것을 삼는 믿음의 손을 뻗힐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자기 죄과와 죄책을 그대로 시인하고 죄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회개했습니다. 죄를 알고 슬퍼하고 돌이키는 의지적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요1:9) 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중심의 진실을 구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삶을 결심해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함 받은 후 펼쳐지는 믿음의 삶을 포함합니다. 정직한 마음(10), 성신의 인도를 받는 마음(11), 자원의 마음(12), 의를 증거하는 마음, 찬송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상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작은 생각에서부터 일어나야합니다. 죽은 자를 살게 하는 생명의 회개가 여러분의 작은 생각 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 3. How to truly repent (Psalm 51:1-19) July 26, 2006

Resurrection faith, “I will live even if I die,” arises at the site of true repentance. David committed the heinous sins of murder and adultery, but after hearing the rebuke of the prophet Nathan, he repented and entered a deeper position of grace. This psalm clearly shows us the method of true repentance. How do you repent? First, we must rely on the Lord’s love. Who dares stand before the fury sword of God's justice? When David looked at his sins before the light of righteousness, he was weighed down by the guilt he had committed and confessed that he was a sinner born in sin. (2-6) However, his love covers and wraps up God's justice. By paying attention to love and mercy, we come before God. In verse 7, hyssop is an instrument of atonement used to dip and sprinkle lye for atonement. (Numbers 17:) His desire to seek this was based on the merits of Jesus, the coming Messiah, with his death on the cross in mind. Because only the blood of Christ cleanses all the sins of his people. Because only the blood of Christ can forgive all my sins. Second, he must admit his sin. No matter how prepared you are, healing occurs when you stretch out the hand of faith that makes it yours. David acknowledged his sin and guilt and repented by confessing his guilt to God. There was a willful decision to recognize sin, grieve, and turn back. (John 1:9) Those who seek the central truth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ir sins have hope. Third, he must decide to live a life of faith. True repentance includes a life of faith that unfolds after receiving forgiveness. It is to have an honest heart (10), a

heart guided by the Holy Spirit (11), a willing heart (12), a heart that testifies to righteousness, a heart of praise, and a broken heart that offers one's body as a living sacrifice. True repentance must arise from our small thoughts. I hope that the repentance of life that brings the dead back to life will arise from your small thoughts.

#### 4. 구원자가 누구뇨? (시53:1-6) 2006.8.9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은 "거듭남(regeneration)"의 기준에 달렸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은 신분적 구분만이 아니라 기능 면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악인 은 절망으로 마치고만 의인은 반드시 소망으로 나가기 때문 입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당하는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전적 부패한 인간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그는 하 나님이 없다는 생각부터가 어리석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 나님이 없다는 사상에서 온갖 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악하 고 가증되고 지각이 없고 강포하고 무지한 것이 모두 거기 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의 심판으로 흠어진 뼈처럼 패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선행자가 하 나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바울 사도가 인 류의 전적타락을 설명할 때 이것을 인용할 정도로 다윗은 인간의 비참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롬3:10-18)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구원을 사모했습 니다. 하나님의 주인 됨을 인정하는 때에 경외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 나 님뿐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회 복의 은총을 기대하며 확신하여 찬송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기에 환난 때에 하나님만을 찾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흥 현장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두드러졌습니다. 인간의 죄인 됨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깨달아질 때 참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난 날이라 하 여 헛된 기간이 아닙니다. 다윗은 죽을 위기 속에서도 구원 의 은혜가 더욱 더 견고해지고 공창의 별처럼 빛나는 체험 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주이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 4. Who is the savior? (Psalm 53:1-6) 2006.8.9

The distinction between believers and unbelievers depends on the criterion of “regeneration.” The new life born again creates a difference between heaven and earth not only in terms of status but also in terms of function. This is because the wicked in tribulation end in despair, but the righteous always go out with hope. In this Psalm, David realized two things during the extreme tribulation of being attacked by Saul. One was the truth about the total depravity of man. He concluded that the idea that there is no God is foolish. This is because all kinds of sins arise from the thought that there is no God. He learned that everything evil, abominable, senseless, violent, and ignorant comes from there. They will finally be destroyed like scattered bones by God's judgment. There is no spiritual good deed in this world who can stand before God. David was so deeply aware of human misery that Apostle Paul, who defends the gospel in Romans, quotes this when explaining the total depravity of mankind. (Romans 3:10-18) Therefore, born-again Christians must humbly acknowledge their sins. You have no choice but to repent. Furthermore, he longed for God's absolutely sovereign salvation. This is because reverence begins when he acknowledges that God is his master. The only one who can save Israel from Zion is God. Therefore, he confidently praised God, hoping for the grace of recovery from captivity. Because only God is our savior, we seek only God during times of trouble. Historically

speaking, these two things have always been prominent in revival scenes. When we realized that humans are sinners and that God is sovereign, the true work of salvation occurred. Even though it is a day of trouble, it is not a vain period. Even when David was on the verge of death, the grace of salvation became more solid and he experienced shining like a star of joy. Let us become saints who think and do everything before the Lord, the true Savior.



## 5. 의를 좋아한 신자 (시52:1-9) 2006. 8.2

우리는 요셉처럼 악을 선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를 살 아갑니다. 천재지변과 끊이지 않는 전쟁 소문 외에도 우리 일상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이 좁은 길을 걷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시고 악한 행동 속에서도 악을 선용하여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것처럼 본문의 다윗 역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원수의 무자비한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확신으로 난세를 잘 극복했습니다. 도액의 참소로 인해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이 다 죽임을 당하면서 다윗은 위기를 맞습니다.(삼상 22:)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답답한 심정에서 흘러나온 것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의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죄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의 길을 갈 수 있나요? 첫째, 악을 미워하여 책망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악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 악행의 뿌리를 탐욕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언제나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삭도와 같은 거짓된 혀를 파하시고 그들을 장막에서 뽑으시고 생존의 땅에서 뿌리를 뽑아 영원히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욥처럼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근본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영원한 소망을 얻습니다. "육체 밖에서 나의 구속자를 만나리라(욥 19:25-26)"는 확신은 현실의 절망에서도 영원한 빛 아래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 의를 더욱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악행을 보고 도리어 두려워하며 그들의 행위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풍부를 의지하고 악으로

무장하는 그들에게 심각한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의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집의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재물의 양자택일은 동서고금을 통해 언제나 있어왔던 생활의 시금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창 13:11-13), 예수님의 가르침(마6:24), 바울의 가르침(딤후6:8-10)이 그러했습니다. 근본을 하나님께 둔 의인은 악한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부단히 일하시기 때문 아무리 조건이 불리해도 악에게 편승하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성도가 되어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5. A believer who loves righteousness (Psalm 52:1-9) 2006. 8.2

Like Joseph, we live in a time when we need the wisdom to use evil for good. This is because, in addition to natural disasters and constant rumors of war, problems lurking in our daily lives are preventing us from walking the narrow path. Just as Joseph saw the hand of God accomplishing his will by using evil for good even in the harsh and evil actions of his brothers, David in the text also survived difficult times with the confidence that God's will would be accomplished in the merciless actions of his enemies, even though many years had passed. I overcame it. David faces a crisis when the entire priestly family of Ahimelech is killed due to Doeg's accusation. (1 Samuel 22:) The text flows out of David's frustrated feelings upon hearing this news. Those who love God walk the path of righteousness, but those who do not follow God walk the path of sin and eventually perish. How can I walk the path of righteousness? First, we can go by hating evil and rebuking it. The wicked

that David discovered refer to those who oppose the will of God. Because the root of his evil deeds is greed, he is far from establishing God's will and is always busy establishing his own kingdom. God said that he would break down lying tongues like a razor, uproot them from their tents, uproot them from the land of survival, and destroy them forever. However, the righteous, like Job, gain eternal hope because they place their foundation in God even in the midst of the crisis of absolute despair. The confidence that “I will meet my Redeemer outside the body (Job 19:25-26)” enabled me to live under eternal light even in the despair of reality. Second, we must love righteousness even more. When the righteous see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they are afraid and consider their actions to be worthless. This is because severe judgment will follow those who rely on wealth and arm themselves with evil. At times like these, the righteous rely only on God, seek His righteousness first, and live like green olive trees in God's house. The choice between God and wealth has always been a touchstone of life throughout the East and the West. This was the case with Abraham and Lot (Genesis 13:11-13), Jesus' teachings (Matthew 6:24), and Paul's teachings (1 Timothy 6:8-10). A righteous person whose roots are in God has no choice but to praise even in an evil environment. Because the invisible hand of the Lord who controls tribulation is constantly working, no matter how unfavorable the conditions are, we must not take advantage of evil, but rather become saints who suffer for the Lord and the gospel and live in eternal victory.

## 6. 열병의 치유 (마8:14-17) 2006. 7. 16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가 꼭 병을 일으키듯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치명적인 영적열병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유대인의 열심이나 인생경험과 신령한 체험과 지식이 많은 엘리바스의 열심 역시 고통당하는 욥에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열병에 붙들려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들린 사람들을 치유한 주님을 통해 우리는 능력있는 치유에 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치료의 목적. 왜 주님은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한 이를 기록으로 남기셨나요? 열병이 나가고 귀신이 도망가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자의 경우는 복음증거였고 백부장의 경우는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이었다면 베드로 장모의 치유는 온전한 영적건강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받은 즉시 주님을 수종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의 회복이 모든 치료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자에게도 질고를 허락하십니다.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복음을 섬기는 일로 분주한가요 아니면 다른 일인가요? 영적 건강의 자리에 서게 하려고 주님께서 친히 다루심을 알고 섬기는 종의 위치에 서는 지혜를 가지시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건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료의 근거. 열병을 고칠 때 주님은 만지시기만 했고 귀신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셨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53:4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친히 짊어지심을 이루려고 주님이 이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를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자유와 치유와 평화를 맛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 으로 다 해결했다는 것이지요.(히10:12)

십자가의 도가 온전케 했고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셋째, 치료의 방법 문둥이는 주님이 원하셔서 또한 백부장의 종 은 말씀을 보내심으로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됨으로 낮게 하셨습니다. 열병을 꾸짖으시고 만지시매 나았습니다.(막1:29-34, 눅4:38-41) 주님의 치료는 막힌 교제를 제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길을 막는 것은 죄악과 육 적생각들입니다. 넘치는 치료의 강수를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 회 개와 믿음으로 교제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6. Healing of fever (Matthew 8:14-17) July 16, 2006

Just as a virus that invades our body causes illness, there is a fatal spiritual fever that breaks off fellowship with God. Neither the zeal of the Jews without knowledge nor the zeal of Eliphaz, who had much life experience, spiritual experience, and knowledge, were of any help to the suffering Job. We learn the truth about powerful healing through Peter's mother-in-law who suffered from a fever and the Lord who healed people who were possessed by demons. First, the purpose of treatment. Why did the Lord heal his illness and leave a record of it? The goal was not just to cure the fever and make the ghosts run away. If the case of the leper was evidence of the gospel, and the case of the centurion was to open the door to evangelism, then the healing of Peter's mother-in-law was due to complete spiritual health. Because as soon as I was healed, I began to serve the Lord. Restoration of this service is the ultimate goal of all treatment. So,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Lord allows

suffering to those he loves. Job's suffering was nothing else than a demonstration of Christ's suffering on the cross. Where are you now? Are you busy serving the gospel or is it something else? To help you stand in a position of spiritual health, please have the wisdom to stand in the position of a servant and know that the Lord is personally dealing with you, and seek health for that very purpose. Second, the basis for treatment. When curing a fever, the Lord simply touched and commanded the possessed people to cast out the demons. Matthew quotes Isaiah 53:4 and says that the Lord did this so that He could take upon Himself our infirmities and diseases. It is said that it is natural for us to experience freedom, healing, and peace because He took upon us all our weaknesses, our sufferings, our sorrows, and our wounds. It means that everything was solved once and for all through death on the cross. (Hebrews 10:12) The message of the cross has made us perfect and will make us perfect forever. Third, the method of treatment was to heal the leper by sending the word to the centurion's servant because the Lord wanted it, but here, the leper was healed by the restoration of close fellowship with the Lord. He rebuked her for her fever and touched her, and she was cured. (Mark 1:29-34, Luke 4:38-41) The Lord's healing was done by removing the blocked fellowship. What blocks the flow of the Lord's power is sin and fleshly thoughts. I pray that you will become a believer who restores fellowship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in order to enjoy the overflowing river of healing as your own.

## 7. 감사제사를 드리는 자 (시50:1-23) 2008. 7.12

56가지로 구성된 사람의 몸의 원소 중 어떤 소량의 원소라도 결핍될 때 병에 걸리듯 사람의 영혼도 항상 유지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를 향 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감사제사의 삶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우리와 같이 감사신앙으로만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음을 이 시편의 시 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삽은 환난 당할 때 감사제사의 삶을 영위하기 위 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5, 23) 전능자이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시온에서 자기의 얼굴 빛을 비추어 은혜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인 교회를 불러 모아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기를, 제사함으로 나 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의 영혼으로 자신을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 은 외식된 제사라며 받지 않으셨습니다. (10-11) 환난 날이 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이끄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구원받은후 드리는 산제사의 삶은 만고불변의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롬12:1-2) 드리는 자의 감사와 서원 과 기도가 빠진 헌신은 의인의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악 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 에 언약을 입에만 두고 외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 은 예배의 삶에서 진위가 드러나도록 되어있습니다. 둘째, 감사 제사를 드린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보장됩니 다. 감사 제사를 통한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환난은 영혼 불통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치 말고,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간 아삽처럼 믿 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7. Those who offer thanksgiving sacrifices (Psalm 50:1-23) 2008. 7.12

Just as the human body becomes sick when it is deficient in even a small amount of the 56 elements of the human body, there are elements that the human soul must always maintain. This is a life of rejoicing always, praying without ceasing, and giving thanks in all things." Paul says that this is God's will for us, and in short, it can be said to be a life of thanksgiving. Just like us in the Old Testament times, we only lived with thankful faith. First, the poet of this psalm testifies that he was able to enjoy the abundance of his soul. (15, 23) What does Asaph tell him to do in order to live a life of thanksgiving when he is in trouble? God, who shines his face and gives grace in Zion, gathers his people, the church, and gives them instructions, commanding them to come out with sacrifices and worship him with a spirit of gratitude. God did not accept Israel's sacrifice, calling it a hypocritical sacrifice (10-11). He promised that even in times of trouble, when people worship God with thankful faith, He will definitely respond and lead them to a place where they can glorify Him. The life of a living sacrifice after salvation is the eternal and unchanging path of truth. (Romans 12:1-2) The devotion of the offerer without gratitude, vows, and prayers was never the path of the righteous. Because we do not listen to God and live according to our own will, we live a life of hypocrisy, keeping the covenant in our mouths. Second, eternal



salvation is guaranteed to those who offer thanksgiving sacrifices. Life through sacrifice moves God and God is glorified through it. The greatest tribulation of Christians is that no matter how great the difficulties, they should not be discouraged and believe like Asaph, who came to God in repentance and humility. I hope that as you live your life, you will reach the ultimate goal of life, which is to rejoice in God and give glory to God.

## 8. 하나님 의뢰자의 장래 (시49:1-20) 2006.7.5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말씀에 뿌리를 박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은총을 크게 받은 것도 그의 재주와 지혜로 인한 명예와 권세에 있지 않고 도리어 그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깨달음에 있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로 이해한 사람의 장래에 관해 고라자손은 물질을 의지하는 자와 대조하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질을 의뢰하는 자의 장래는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자를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하며 멸망할 짐승이라고 했습니다.(12,20) 그 이유는 그 물질로는 생명을 결코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8,14) 한 부자 청년 율법사가 주님을 떠나간 이유는 영혼구원의 가치를 자기 재물보다 덜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을 따라 사는 자는 마침내 자기 물질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람의 모든 영광과 칭찬과 자랑거리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혈육을 권력으로 삼은 자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렘17:5) 둘째,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빛을 봅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시를 묵상하며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는 지혜, 명철, 비유, 오묘한 말로 명명되기도 합니다. 가장 소중한 영혼 곧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에 그 닻줄을 던질 때만 참 평안과 능력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거기서 나오는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영위하다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복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8. The future of God's clients (Psalm 49:1-20) 2006.7.5

The richest people in this world are those who are rooted in the Bible, the revelation of God, and live by its power. The reason why Daniel received great grace was not because of his fame and power due to his talent and wisdom, but rather because of his understanding of God's revelation.

Regarding the future of those who correct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works, the sons of Korah testify to this amazing truth by contrasting them with those who rely on material things. First, the future of those who rely on material goods is destruction. Those who trust in material things as if they were God are called wicked and beasts destined to perish. (12,20) The reason is that life can never be redeemed with material things. (8,14) A rich young lawyer. The reason he left the Lord was because he thought the value of soul salvation was less important than his wealth. A day will inevitably come when those who live according to material possessions will eventually be unable to enjoy their material possessions and all their glory, praise, and pride will disappear like foam. Because he is cursed as the one who made flesh and blood his power (Jer. 17:5) Second, but those who rely directly on God see eternal light. He is also saved from the power of Hades and is accepted by God. Because he feared God, meditated on His revelations, and obeyed Him completely. This revelation is also called wisdom, understanding, parables, and mysteries. This is because true peace and power come only when the most precious soul, that is, the heart, casts its anchor line on the revelation of God. I pray that you will become blessed saints who understand and obey the Word, lead fruitful lives with the power that comes from it, and go on to the place of eternal salvation.

## 9.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시48:1-14) 2006.6.28

역대하 20장을 배경으로 한 고라자손의 찬송시인 48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 되심을 드러냅니다. 암몬, 모압, 마온, 에돔의 연합군 공격 앞에 선 여호사밧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을 맞습니다. 그때 그는 유다백성들 남녀노유를 다 모아 놓고 금식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하시엘 선지자를 성신으로 감동시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왕은 기도하고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끼리 싸우게 하여 기적적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다? 첫째, 영원한 피난처 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1-8) 자기 백성의 극진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광대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 이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반드시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여호사밧이 열조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기업을 보호를 주장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승리이후 아합 집과의 결혼동맹으로 통일정책을 폐지하고 다시스로 배를 만들어 보냈지만 파선케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악한 아합왕과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유일한 피난처 되신 분은 형통한 날에도 계속되는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둘째, 그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여 이끄심으로 보호하십니다. 고라자손은 환난 중에서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인한 것을 알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시온산 즉,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공의를 노래하라고 권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위기, 환경위기, 영적위기의 삼중고를 당하는 오늘날,

우리의 피난 처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 속에 파묻혀 그의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전심으로 부르짖어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주장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절대 약속을 의지하며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자가 되어야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 9. Our eternal God (Psalm 48:1-14) 2006.6.28

Psalm 48, a hymn by the sons of Korah, set in 2 Chronicles 20, reveals that God is the only protector. Jehoshaphat faced the combined attack of Ammon, Moab, Maon, and Edom. At that time, he gathered all the people of Judah, men, women and children, and made them fast and pray. God moved Prophet Jahaziel with the Holy Spirit and responded that God Himself was fighting. The king prayed again, and the sons of Korah praised God for His grace. God made them fight among themselves and achieve a miraculous victory. How did God protect his people? First, He protects us by becoming an eternal refuge. (1-8) The only refuge is the vast God, who is worthy of the utmost praise from his people.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will receive absolute protection. When Jehoshaphat remembered the promise he had made to his ancestors and asked for protection for his inheritance, God listened. However, after his victory, he pursued a policy of unification through a marriage alliance with the house of Ahab, and sent a ship to Israel, but he caused it to be shipwrecked. The reason is because he was not pleased to be associated with evil King Ahab. The only refuge in times of trouble is the source of continued grace even in times of prosperity. Second, He guides and protects us based on His love and justice. The sons of Korah praise God, knowing that

their salvation from tribulation is due to God's love and justice. So, I encouraged them to remember God's great love and sing about His justice among Israel, the Old Testament church, on Mount Zion, the city of God. Because this love and justice will guide us forever. Today, as we face the triple hardship of war, environmental crisis, and spiritual crisis, we must become saints who are buried in the love and righteousness of God, our refuge, and receive His protection. To do this, we must come humbly before God and cry out with our whole heart. We must claim that God is our only refuge, rely on the absolute promise that the powers of Hades cannot overcome, and become believers who receive and enjoy special grace. Because he is my only protector.

## 10. 찬양받으실 만왕의 왕(시47:1-9) 2006. 6.21

고라자손의 찬양시인 47편은 찬양할 이유를 밝혀줍니다. 찬양받기위해 선택받은 우리들이 그 이유를 알 때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축구경기에서 자기나라 선수에게 마음이 끌리듯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 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생리적으로 끌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첫째이유는 만유의 주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를 지존자로 알고 큰 임금(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크게는 우주의 일월성신을 다스리면서 작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회고 검게 하시는 자상한 분이란 것입니다. 둘째이유는 그는 택한 자의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우리"와 열방"을 구분하여 제한된 부류의 하나님되심을 강조하였고 4절엔 그분의 택한 기업인 야곱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창조자, 섭리자,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대 제국 속에서도 택한 백성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 자기 나라를 이끄신 것처럼 21세기의 온 세계 국가의 활동 속에서도 찬양하는 택한 백성을 준비 하신 것입니다. 셋째이유는 그는 만유의 주인이며 택한 자의 왕이시며 동시에 온 열방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심을 알았기에 찬양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유, 택한 백성 그리고 온 세상 민족으로 퍼져 나갈 그의 통치를 알고 겸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의 방패가 되십니다. (8-9) 그의 허락으로 세상이 움직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시인은 손뼉치며 즐거운 소리와 지혜의 시로 전심으로 찬양하라고 권했습니다.(1,5-7) 축구경기에서

좋은 수비와 더불어 적극적인 공격을 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의 공격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 10. Praise be to the King of kings (Psalm 47:1-9) June 21, 2006

Psalm 47, a psalm by Korahjason, reveals reasons for praise. Those of us who have been chosen to be praised can lead a blessed life when we know the reason. Just as people are attracted to their own country's players in a soccer game, the reason why God's people are physiologically attracted to thanking, praising, and giving glory only to God is because they possess the life of God. Why should we praise God? The first reason is because I knew that I was the master of all things. In verse 2, we praise Him because we know Him as the Most High and as a great King. On a large scale, he rules over the sun, moon, and stars of the universe, and on a small scale, he is a kind person who even makes every hair on our head white and black. The second reason is because he knew that he was the king of the chosen ones. In verse 3, the poet emphasized that He is a limited type of God by distinguishing between "us" and "the nations," and in verse 4, He showed that He is a creator, providence, and savior who personally guides the path of Jacob, His chosen inheritance. Even in the great empire of Babylon. The third reason is that, just as he led his nation through his chosen people,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he has prepared a chosen people to praise even in the activities of nations aroun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He praised God because he knew that He rules according to His will. That is why he humbly praises God's reign, which will spread to all things, the chosen people, and the nations of the world. He sits



on the throne and becomes the shield of all the worlds. (8-9) The poet, who knows this, encouraged us to clap our hands and praise him with all our hearts with joyful sounds and poetry of wisdom. (1,5- 7) Just as you can win a soccer game by having a good defense and an active attack, the victorious life of a Christian is when you serve God fervently with an aggressive attitude of gratitude and praise, and beautiful works happen when you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et us live as a people of praise.

## 11. 환난 날에 도울 분(시46:1-11) 2006.6.14

고라자손의 또 다른 찬송시인 46편은 환난당한 하나님 백성의 절대 피난처인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만인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기에 그들은 환난 중에 서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복을 누리는 신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력과 평강을 갖습니다. 이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요동하고 바다가 홍융해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힘과 방패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난관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란 것입니다. (1) 영적 쓰나미가 몰려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들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그는 전능한 통치자로서 만유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임하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안에 숨는 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4-5절에 시인은 마치 에덴동산을 연상하여 그의 다스림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룩한 보좌에 좌정하셔서 만사를 친히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무기를 파하시고 평화를 주시며 열방에서 높임을 받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는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일하십니다. (9) 그래서 그의 왕됨을 인정하는 자는 이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첫 시간에 그를 만나려고 나가는 자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6:33) 목숨을 위협하는 한 군주의 철벽같은 절대문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시원한 대답을 얻은

것 처럼 환난 날에 그분 앞에 겸손히 구할 때 하늘의 참 평안 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1. One who will help in the day of trouble (Psalm 46:1-11) 2006.6.14

Psalm 46, another hymn by the sons of Korah, praises Jehovah, the absolute refuge of God's people in trouble. Because God, who rules over all people and all things, is their only refuge, they enjoy the blessings of Immanuel even in times of tribulation. Believers who enjoy the blessings of God's presence are not afraid and have courage and peace in any situation. What gives you this courage? The first reason is because we made God our refuge. The reason we were able to be courageous even when heaven and earth were shaking and the sea was raging was because we had God as our strength and shield. So, the only one who can provide practical help in dealing with real-life difficulties is God. (1) The reason we can enjoy peace even when a spiritual tsunami comes is because Almighty God handles it. The second reason is because He rules over all things as an almighty ruler. Because our God comes and rules anytime and anywhere, he does not shake anyone who hides in him. In verses 4-5, the poet seems to express his rule by reminiscent of the Garden of Eden. He sits on the holy throne and personally intervenes in all things. He destroys all weapons of war, gives peace, and is honored by all nations. He Himself works in the temple, Christ. (9) So those who acknowledge his kingship can enjoy the blessings of Eden. So we must wake up at dawn to meet Him. He who goes out to meet him in the first hour finds true freedom. This is because there is grace that helps at dawn. (Matthew 6:33) Just as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received a clear answer when they asked for God's mercy, the absolute problem of a monarch that threatens their lives is answered by God in the day

of trouble. You can possess the true peace of heaven when you humbly ask for it.

## 12. 왕이신 그리스도(시45:1-17) 2006. 6.7

왕의 결혼축가로 보는 시편 45편에는 왕의 아들과 딸이 왕권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9) 주석가들은 그 왕을 솔로몬으로 보며 장차 나타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왕께 주어진 권위가 범세계적이기 때문입니다.(16)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고난과 시험의 과정을 거쳐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라가 죽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줄로 아는 인생의 자랑으로 살지 않고 오직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복을 주어 왕의 공도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의 근원됨이 우리가 누릴 내용입니다. 그 왕에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째,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는 것은 마음에 받은 은혜가 말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의 원천이시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에게 오기만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절대승리의 은혜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반드시 이기십니다. 면류관을 받고 또 이기고 이기십니다. 이렇게 이기시는 목적이 진리와 온유와 의로 통치되는 하나님나라를 세우시기 원함입니다.(4) 아브라함을 선택 하여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은 하나님나라를 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창 18:19) 셋째, 만민의 경배를 받는 자리입니다. 마침내 그 왕은 만민에게 경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5,11)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은 그리스도에 수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계속 실현되고 있기에 (마28:19-20) 우리는 어디에서나 절 대 승리를 보장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왕권을 주장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12. Christ the King (Psalm 45:1-17) 2006. 6.7

Psalm 45, which is seen as a wedding song for a king, shows that the king's son and daughter enjoy royal authority. (9) Commentators view the king as Solomon and believe it to be a symbol of Jesus, the Messiah, the future King of kings. The reason is that the authority given to the king is global. (16) Therefore, in Matthew 12:42, Jesus himself said that the Son of Man is greater than Solomon. However, God's promise was fulfilled through many hardships and tests. Abraham's family was no exception and suffered the sorrow of Sarah's death. He did not live with pride in his life, thinking that he would live on this earth for a thousand or ten thousand years, but lived as a traveler, looking only for a better home. However, wherever and whenever he did whatever he did, he blessed him in everything he did, demonstrating his righteousness as a king. This source of blessing is what we are to enjoy. What is the promise of grace given to the king? First, it is the fullness of grace. Having grace on his lips means that the grace he received in his heart was expressed in words. Christ is the source of grace,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Just come to him and he can receive grace upon grace. Second, it is the grace of absolute victory. He is sure to win in everything. He receives the crown and wins again and again. The purpose of winning in this way is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ruled by truth, gentleness, and righteousness. (4) Choosing Abraham and making him prosper in everything is the same as establishing the kingdom of God.

(Genesis 18:19) Third. , It is a place where all people worship. Finally, the king has no choice but to be worshiped by all people. (5,11) The promise of being the source of blessing to all nations was fulfilled in Christ Jesus and continues to be realized through the Christian life living in Him (Matthew 28:19-20), so we are guaranteed absolute victory everywhere. These are the happy people who received it. I hope you live by claiming this royal authority.

### 13. 구원의 하나님(시44:1-26) 2006. 5.31

시편 44편은 과거 언약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회상하여 얻은 진리를 적용하여 고난과 압제를 극복한 성도의 찬양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1-2절에 보면 조상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열방을 괴롭게 하여 가나안에서 제하시고 대신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 땅을 주어 번성케 하셨습니다. 가나안정복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방법은 항상 이러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고(창 3:15) 우상 장사하던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만드실 때 협상이나 타협없이 홀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여 이루신 구원이기에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 구원방법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압제는 죄 때문에 온 징계가 아니고 연단 목적으로 허락된 시련입니다.(17)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먹힐 양갈게 하사 대적에 게서 도망가며 탈취를 당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들을 홀으셨다고 했습니다.(10-11) 또 사랑의 처소에서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어(18-19)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2) 섭리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때 원망과 불신앙으로 떨어지기 쉬우나 시인은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일어나 도와달라고 하며 사랑의 약속을 믿고 구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구원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많은 까닭 없는



고난이 몰려오지만 그리스도의 이미 성취하신 승리로 반드시 이기게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롬8:26) 이 은혜의 구원을 믿는 자는 현재의 고난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 13. God of salvation (Psalm 44:1-26) 2006. 5.31

Psalm 44 is a praise of the saints who overcame suffering and oppression by applying the truth obtained by recalling God's hand in saving the covenant people of the past.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the method of salvation has always been the same. "Only God saves us." First, in verses 1-2, for the salvation of our ancestors, God harassed the nations and removed them from Canaan, and instead gave the land to the ancestors of faith to prosper. Through the conquest of Canaan, God showed us as an example the truth that God's method of salvation is always this way. When God made enemies with serpents (Genesis 3:15) and called Abraham, who had been selling idols, into a source of blessings, God did it alone without negotiation or compromise. Because it is salvation that God Himself initiated and achieved, only God must receive eternal praise. Second, the past methods of salvation remain the same today. This applies. The present suffering and oppression are not discipline due to sin, but are trials permitted for the purpose of refinement. (17) How severe the suffering was, the poet confesses that God made them like sheep to be eaten, fleeing from the enemy and being despoiled. They said that the Lord had scattered them (10-11). They also said that they were bruised in the place of mourners and covered with the shadow of death (18-19), and that they were killed for the Lord and regarded as sheep for the slaughter. (22) It was a providential hardship. At that time, it was easy to fall into resentment and disbelief, but the poet remembered the covenant and went to the Lord and

cried out. He stood up and asked for help, to believe in the promise of love and to be redeemed. This is the true believer's view of salvation. Apostle Paul was confident that even if he were a believer who was guaranteed eternal victory, he would surely overcome through the victory that Christ had already achieved, even though he would face many causeless hardships on this earth. (Romans 8:26) Those who believe in the salvation of this grace have hope and persevere even in the present suffering.

#### 14. 극락의 하나님 (시43:1-5) 2006. 5. 21

본문은 동일한 정황과 구절들(42:5,11과 43:5을 비교하 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편 42편의 후속편으로 취급됩니다. 낙망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리에 나옵니다. 전자는 반석이며 생존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던 것을 후자는 힘이신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은혜의 체험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애용하는 이 극락이란 말은 기쁨(joy)과 즐거움(delight)을 가리키는 것으로 육적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는 절망에서 하나님 임재 체험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즐거움을 누렸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2) 그는 원수의 압제를 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의식을 가진 아주 비참한 지경이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회개하며 민족적인 강한 세력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에게서 변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때 배운 것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게 했습니다. 둘째, 진리의 빛에 거했습니다. 3절에서 그는 자기 방어나 구출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 고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빛은 사랑이며 진리는 말씀입니다. 문제해결의 키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찬양하는 예배자로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안의 은혜와 진리가 성령을 통해 성경말씀을 깨달을 때 맛보아지는 것이란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다하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 가 부르짖었습니다. 낙망이 되고 곤핍해도 하나님께 부르짖 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인이 기도 응답 받은 것 을 5절이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극락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번뇌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주 시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14. God of Paradise (Psalm 43:1-5) May 21, 2006

This text is treated as a sequel to Psalm 42 because the same context and passages appear (compare 42:5,11 and 43:5). Disappointing souls receive answers to their prayers from God and go to places where their hope lies only in God. The former is called the rock and the living God of life, while the latter is called the God of paradise and strength. This is because the experience of grace has become deeper. The word paradise used in Buddhism refers to joy and delight, meaning spiritual pleasure, not physical pleasure. In his despair, he tastes the joy of heaven through the experience of God's presence. How did you enjoy this? First, he made God his strength. (2) He prayed to God when he was in a very miserable state, oppressed by his enemies and feeling abandoned by God. He examines his faults before God, repents, and asks God to defend him from the enemy who attacks him with strong national forces. He cried out for deliverance from a very miserable state. What I learned at that time was to make God my strength. This gave me real pleasure. Second, he lived in the light of truth. In verse 3, he asked God to send his light and truth, not for self-defense or rescue, but to benefit from the grace that only God gives. This light is love and truth is the word. This is because I was convinced that the key to solving the problem was to

experience God's love and become a worshiper who praises God according to His will. It is a truly amazing mystery that the grace and truth in Christ can be experienced when one understands the words of the Bible through the Holy Spirit. Third, I cried out to God. He did not remain silent because he considered God to be the source of his strength, but he went before God and cried out. Even if you are discouraged and in need, if you cry out to God, you will definitely meet Him. Verse 5 proves that the poet's prayer was answered. To hope only for God is to experience paradise. I pray that you will become saints filled with the joy that God gives you in a world full of pain and anguish.

## 15. 주를 갈망하자 (시42:1-11) 2006. 5.17

다섯 권으로 편집된 시편은 모세오경에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기가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시편은 하나님 께 대한 백성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둘째권의 시작인 42편은 성소에 들어가려는 성도의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이 갈망과 사모심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은혜입니다. 시인은 어떻게 갈망했으며 어떤 결과에 이르렀습니까? 첫째, 갈망의 동기 - 성도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몰려와 낙망될 때, 원수가 뼈를 찌르는 것같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 그리고 과거의 은혜 받은 때를 회상하며 현재의 상태와 비교할 때 의인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증거입니다. 시인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 헤메며 생존하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망의 기회로 삼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둘째, 갈망의 정도- 성도는 열심히 갈망했습니다. 적어도 장소를 옮겨 다니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단광야와 몬 산과 미살산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도 새벽미명에 한 적한 장소를 찾아 기도하셨고 바울도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바쁜 중에서도 골방을 찾아 기도하며 공회를 찾아 기도하는 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셋째, 갈망의 결과- 그의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망은 마침내 하나님 사랑에 잠기는 체험을 하게했습니다. 폭포와 파도 소리를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 사랑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낮에는 인자로 만 족하고 밤에는 찬송하고 기도로 응답했습니다. 빌립보  
감옥 의 바울과 실라처럼 그 큰 사랑을 맛보며 즐기는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갈망의 은혜가 넘치어 하늘의 것으로 배부 른 삶을 영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15. Let us long for the Lord (Psalm 42:1-11) 2006. 5.17

The Psalms, compiled into five books, are said to be aligned with the Pentateuch. If the five books of Moses,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and Deuteronomy, are God's words given to his people, then the Psalms can be said to be the people's response to God. Section 42, the beginning of the second volume, begins with the believer's desire to enter the sanctuary. This longing and longing is a grace that every Christian must possess because it is proof that his soul is alive. What did the poet desire and what result did he achieve? First, the motivation for longing - believers do not long for God only when things are good. When hardships come and discourage you, when enemies taunt you as if piercing your bones, asking "Where is your God?", and when you recall past times of grace and compare them with your current state, the righteous seek God. It's possible. This is proof that you have a living soul. The poet wandered in search of God like a thirsty deer, hoping to meet the God of survival, the God of rock, and the God of life. If you use your current suffering as an opportunity to desire to meet God, God will surely meet you. Second, the degree of longing - the saint longed hard. At least I found God by moving from place to place. He went to God in the wilderness of Jordan, Mount Mon, and Mount Misar. The Lord also found a quiet place

to pray in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and Paul also once went to the riverside to find a place to pray. God responded to those who had the zeal to pray in private rooms and public meetings even when they were busy. Third, the result of his longing - his longing to meet God finally led him to experience being immersed in God's love. When I heard the sound of the waterfall and waves, I could hear the Lord's voice. The voice of God's love captured his heart, and he was satisfied with lovingkindness during the day and responded with praise and prayer at night. Like Paul and Silas in the Philippian prison, they became people who tasted and enjoyed that great love and experienced satisfaction with only God. This is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I hope that you will become saints who are filled with the grace of longing and lead a life filled with heavenly things.



## 16. 재앙에서 건지실 분(시41:1-13) 2006. 5.10

시편 1권의 마지막인 본문은 고난당하는 의인이 재앙과 무자비한 악인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 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13) 의인의 삶은 잔잔한 호수 위의 뱃놀이처럼 무사태평의 삶이 아니라 온갖 풍랑으로 일어나는 듯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 승리를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인이 처한 절망의 심연.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려 큰 위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쇠약한 병상,""악한 병(5-9)" 이란 말이나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원수의 조롱이 그의 상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원수는 기회를 놓칠세라 그가 죽기를 바라고 악담하며 거짓으로 공포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그 원수 중에는 가까운 친구도 있기에 다윗의 마음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심각한 재앙이 자기를 엄습한 사람처럼 처절한 자리에 누워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로 넘겨진 주님의 고난을 생각케 합니다. 의롭게 살고자하는 자는 핍박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둘째, 의인의 대처방안. 이런 자리에서 의인은 3가지 일을 이행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했습니다.(10-12) 그리고 원수의 저주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3-4) 더 나아가 자기보다 더 약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행했습니다.(1-2)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연단하여 폭이 넓어지는 인격으로 빚어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셋째, 의인의 복. 불로 연단된 의인은 재앙의 날에 찬송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란 확신이 넘칠 뿐 아니라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 복은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신 까닭입니다. 12절에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는 말은 그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 분이 함께하는 곳에 구원이 있고 치료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찬송이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실락 원이 복락원으로 바뀌집니다. 에덴의 복은 고난이란 베일에 가리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 16. The One who will save you from disaster (Psalm 41:1-13) 2006. 5.10

The final text of Book 1 of Psalms shows how a suffering righteous person was saved from disaster and the hand of a ruthless wicked man and came to praise God. (13) The life of a righteous person is not a life of peace and tranquility like boating on a calm lake, but a life of peace and freedom from all kinds of troubles. It allows us to experience God's victory through acts of faith even in the midst of hardships caused by storms. First, the abyss of despair that the righteous face. David was in a position of great crisis due to a fatal illness. The words "weak bed," "evil disease (5-9)" and the enemy's taunts that he would never rise again clearly show the seriousness of his condition. The enemy He did not want to miss the opportunity, so he committed the evil act of speaking evilly and making false announcements, hoping that David would die. Moreover, among his enemies were close friends, so David was in a miserable state, as if a serious disaster had overtaken him. It reminds me of the suffering of the Lord who was handed over to the cross due to the betrayal of Judas Iscariot. The way of truth is for those who want to live righteously to face persecution. I solved the problem by first going to God and asking for mercy. (10-12) And confessing my sins was a priority rather than seeking the curse of the enemy. (3-4) Furthermore, I

went further than myself. They did good things to those who were weaker. (1-2) This is faith. Third, the suffering that a righteous person experiences is an opportunity to refine and broaden his character. A righteous person who has been refined by fire is not only confident that he or she has received the greatest blessing, but that this blessing comes only from God through the Holy Spirit. The reason for this coming is that in verse 12, we can see David in his presence, and where he is, there is salvation and eternal praise. This is because the place of despair is changed into a place of hope, and the blessings of Eden are given to us covered by the veil of suffering.

## 17. 구원 수단인 기도(시40:1-17) 2006. 5.3

중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관상기도를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관상기도란 내가 무엇을 말하기보다 먼저 조용한 침묵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로 느끼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종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마6:6)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이와 달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지적으로 부르짖어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후, 우리의 실제 삶에서 무수한 구원이 기도의 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기도전 상태- 다윗은 고하기 전에 많은 재앙과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12,14) 그의 영혼을 잡아 죽이려고 원수들이 난무하는 상황에 처하여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1-2) 둘째, 기도 행위- 이런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성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11, 13,14,16-17) 기도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찬송과 선포가 터지기까지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이 참 기도입니다. 셋째, 기도응답- 1-3절에 보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5가지 일은 1)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2)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3) 발을 반석에 두게 하셨고 4) 새 노래를 입에 두셨고 5)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기적과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어 그의 뜻을

즐기는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수단인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무기가 녹슬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사용하여 찬송과 증거로 충만한 생애를 살아갑시다.

#### 17. Prayer as a means of salvation (Psalm 40:1-17) 2006. 5.3

In medieval Benedictine monasteries, contemplative prayer was taught to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Contemplative prayer is known as meditating on God in quiet silence before saying anything and following what you feel as God's guidance in your heart. It is a kind of prayer to God in secret in a closet. (Matthew 6:6) ) However, David in the text differs from this in that he prayed in accordance with God's word, crying out willingly and waiting for an answer. What is important is that after salvation, countless salvations in our real lives are achieved through the tool of prayer. First, the state before prayer - David was in the midst of many disasters and more sins than the hair on his head before he confessed. (12,14) He was in a situation where enemies were rampant to capture his soul and kill him, and he was very poor and destitute. He was struggling in an astounding pit and quagmire. (1-2) Second, the act of prayer - In this place, David waited for God's grace based on God's mercy, love, and sincerity. (11, 13,14,16-17) Prayer is holding on to God and his promises, praying, and waiting for God's answer. You can definitely expect a good response. And true prayer must go forward until it explodes with praise and proclama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methods, but true prayer is rooted in His Word. Third, prayer answers - As shown in verses 1-3, the 5 things God did were 1) heard their cries, 2) rescued them from the pit, 3) placed their feet on the rock, 4) put a new song in their mouth, 5) God allowed us to spread the

gospel to people. David learned of the many miracles and overflowing love that God had prepared, and went out to enjoy God's will. And they sang in front of their neighbors, testifying to God's salvation. Prayer, the means of all salvation, is a means of grace that can be easily practiced anytime, anywhere. Let us use this weapon well from now on so that it does not rust, and live a life filled with praise and testimony.

## 18. 질병에서의 회복(시39:1-13) 2006. 4.26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13)라는 구절은 본 시편이 질병에서의 회복을 구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 해 징계를 받아 병에 걸렸습니다. (8-9)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린 간구의 응답으로 깨끗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다윗의 형편- 죽을 병에 걸려 고통당하며 또한 원수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은 근심으로 채워졌고 원망과 불평으로 뜨거워 견디기가 힘들었지만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발견한 다윗은 생일을 저주한 읍처럼 아주 약한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상 이런 탄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 있었을 뿐 아니라 회심 이후 순교 때까지 고난의 점철이었습니다. 죄와 싸우며 복음을 위 해 당하는 난관은 하나님백성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의 기도-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푸는 법을 아는 자는 복됩니다. 다윗은 이 난관을 기도로 풀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돕지 아니 하시 면 객과 거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뢰며 자기 연약을 알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4-5) 아무리 든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사뿐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그림자 같고 부요를 쌓으나 모두 누리지 못하는 약하고 헛된 존재임을 안 그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인간사의 주권자요, 죄 용서하는 권세자요, 징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결과- 다윗은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징계에서 의 회복과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며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왕이시기에 그 분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언약백성으로서 순종을 철저히 배우게 하시려는 뜻이 숨겨있습니다. 이 귀중한 진리는 고난 속에서 기도함으로 배운 것입니다

#### 18. Recovery from Illness (Psalm 39:1-13) 2006. 4.26

The phrase, “Lord, forgive me and restore me to health before I pass away” (13) is the psalm’s prayer for recovery from illness. David was punished for his sin and fell ill. (8-9) However, he received clean healing in response to his petition before God. What can we learn from his amazing experience? First, David’s situation - he suffers from a fatal illness and is ridiculed by his enemies. His heart was filled with worry, heated with resentment and complaints, and difficult to bear, but he remained silent. David, who discovered how helpless he was, seems to have been in a very weak spot, like Job who cursed his birthday. In fact, this kind of lament is common to all Christians. Not only was Apostle Paul sentenced to death, but he also suffered a series of hardships from his conversion until his martyrdom. This is because fighting against sin and facing difficulties for the sake of the gospel is a very natural thing for God’s people. Second, David’s prayer - No matter how difficult a problem is, those who know how to solve it are blessed. David solved this difficulty through prayer. How did he pray? With tears in his eyes, he asked the Lord to make him aware of his weakness, saying that without the Lord’s help, he would be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and a sojourner. (4-5) I came to know that no matter how strong a person is, he is in vain before God,



and yet God is great. Knowing that life was like a shadow and that he was a weak and vain being who accumulated wealth but could not enjoy it all, he placed his hope only in the Lord. This is because he was convinced that God, who is the sovereign of human affairs, the authority to forgive sins, and the ruler of discipline, is the only hope. Third, the result - David received an answer to his prayer. What is more important than recovery from discipline and healing of illness is gaining experiential knowledge of oneself and God. He was transformed into a person who absolutely obeys God because he is weak and God is strong, because he is God's people and God is his king. The reason He allows us to suffer is hidden in His intention to enable us to thoroughly learn obedience as covenant people. This precious truth I learned through prayer through suffering.

## 19. 징계에서의 회복(시38:1-22) 2006. 4. 19

다윗은 죄에 묶여 영적 공허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에덴동산이 황무지가 된 것 같은 처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회복되었습니까? 첫째, 죄가 징계를 가져왔습니다. 죄의 은사망이라는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영적법칙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범할 때 징계가 따르는 것은 처음에는 아파보여도 그 자체가 해방의 길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까지 말합니다.(히12:8) 어떤 징계였습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4,8) 육체적으로 병들고 다쳐 상처가 났으며 종일 슬픔과 근심 속에 지냈습니다.(5-8, 17-18) 원수가 죽이려고 종일 피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더욱 더 아픈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의식 속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1-3)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해방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둘째, 회개만이 해방의 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마음의 소원과 탄식을 주께 아뢰고 (9)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15) 죄악을 슬퍼하며 주님에게 고했습니다.(18) 그리고 속히 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22) 그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1) 지성적으로 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 감정적으로 죄로 인해 슬퍼하며 믿음으로 그 공로를 붙들고 사랑하는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3)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참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이 전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자로  
살아 갑시다.

#### 19. Recovery from discipline (Psalm 38:1-22) April 19, 2006

David is bound by sin and wallowing in a spiritual void. It was because of God's discipline that the Garden of Eden became a wasteland. How did he recover? First, sin brought punishment. The law that sin is death is a spiritual law that applies to everyone. So, when a believer commits a sin, the discipline that follows is itself a path to liberation, even though it may seem painful at first. It is even said that if there is no discipline, one is not a child of God. (Hebrews 12:8) What kind of discipline was it? I became mentally tired and anxious. (4,8) Physically, I was sick and injured, and spent the whole day in sadness and worry. (5-8, 17-18) In an atmosphere where the enemy plots to kill me all day long. There was also pain. What was even more painful was being in the consciousness of being abandoned by God. (1-3) If you are in such a position, you must find a way to liberation. Second, repentance is the only way to liberation. How did David repent? He made known to the Lord the desires and sighs of his heart (9) and looked to the Lord in faith (15) and mourned over his iniquities. (18) And he cried out to God to save me quickly. (22) He knew what true repentance was and did it. 1) He intellectually knew sin and understood the merits of Christ. 2) He emotionally grieved over sin, held on to its merits by faith, and showed loving expressions. 3) And as pointed out, he accepted God's promise of forgiveness with gratitude. Rather than tearing his clothes, he tore his heart and warmed God's heart. This was my way out of my miserable situation. Let him live as a person who experiences greater grace than before through true repentance.

## 20. 보장받는 의인의 삶 (시37:1-40) 2006.4.12

우리 주님의 수난절기에 그의 죽음에 동참하려는 성도들 에게 다윗이 체험한 큰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의인과 악인의 현 상태와 마지막이 어떠함을 비교합니다. 첫째,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악인은 불에 탄 어린 양 기름의 연기처럼(20-22) 저주받아 땅에서 아주 쪼아져 버립니다.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없어져 찾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35-36), 둘째, 그러나 의인은 복된 마지막을 맞습니다. 땅을 차지 하고(9,22,34,29) 풍부한 화평을 누리며 고난이 물려와도 아 주 오히려 지지 않고 반드시 일어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23-24, 32-33) 의인이 땅 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란 세 가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1) 영적부요인 평안을 누리고 2) 주님께 쓰임 받고 3) 받은 부 요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 나님 경외신앙은 이렇게 귀합니다, 셋째,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은 확 신있는 명령형으로 우리를 권고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3), "여호와를 기뻐하라(4), "너의 길을 여호와 께 맡기라(5),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7), "원 수의 행악을 인하여 분을 내거나 노하지 말라(8)"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뜻과 응답을 기 다리며 하나님 자신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이 성부의 구원계획을 이루기 위해 본을 보이셨습니다. 온갖 수모와 희롱 속에서도 침묵하시면서 그의 사랑은 계속되었 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완성된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였고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걷게 하심으 로서 마침내

은 세상을 그의 의와 사랑과 진실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만유의 중심인 주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여 주님 일에 끝까지 쓰임 받는 의인들이 됩시다.

## 20. The guaranteed life of the righteous (Psalm 37:1-40) 2006.4.12

I hope that the great blessing that David experienced will be with the saints who want to participate in our Lord's death during the Passion season. David compares the current state of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and what their final state will be like. First, the end of the wicked is destruction. The wicked are cursed and cut off from the earth like the smoke of burnt lamb fat (20-22). It is like a lush green tree, but it is gone and cannot be found even if you look for it (35-36). Second, however, the righteous meet a blessed end. He takes possession of the land (9,22,34,29), enjoys abundant peace, and even when hardships come, he does not fall down but stands up. The reason is because God sustains him. (23-24, 32-33) The righteous occupying and enjoying the land means three states. It refers to a life of 1) enjoying peace, which is spiritual wealth, 2) being used by the Lord, and 3) sharing the wealth received with neighbors. In other words, we live a life guaranteed by God in this world. The fear of God is so precious. Third, then, how should a righteous person live? David exhorts us in a confident imperative.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3), "Delight in the Lord (4), "commit your way to the Lord (5), "Be quiet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7), "because of the evil doing of the enemy. "Do not be angry or angry (8)." This means leaving everything to God, waiting for His will and answers, and enjoying God Himself. The Lord who bore the cross set an example to fulfill the Father's plan of salvation. Despite all the humiliation and harassment, his love continued and God's will was

accomplished while remaining silent. By allowing us to be saved through the completed cross and by continuing to walk the path of the cross, He will eventually fill the whole world with His righteousness, love, and truth. Let us boast of the cross of the Lord, the center of all things, experience its power, and become righteous people who are used in the work of the Lord to the end.

## 21.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시36:1-12) 2006. 4.5.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임하는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원수에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이 경외심을 가진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시편 1 편처럼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삶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첫째, 태도(Attitude).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나누어지겠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이유는 마음의 생각부터가 하나님 존전 의식(Coram Deo)이 없기 때문입니다. (1) 무신사상과 불가지론사상(자연신론)이 지배하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심판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은밀한 가운데 죄를 피하면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겸손과 염치와 정절을 갖습니다. 둘째, 생활(Life). 샘에서 물이 솟구치듯이 악인의 마음에서 죄악과 궤홀(거짓)이 솟아나며, 무지해와, 무선행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3) 죄악을 먹고 즐기며 삽니다. 그와는 달리 의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중에 사무친 그의 성실과 높은 산과 같은 그의 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즐깁니다. 더욱이 환난을 당할 때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좋아하며 그 안에서 흘러내리는 풍성한 성실과 사랑의 강수를 마시며 삽니다. 태양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며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자기의 뜻을 꺾고 그의 뜻을 따라 삽니다. (8-9) 셋째, 결과(Result). 그들의 태도와 열매가 다른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생활을 계속합니다.(10-12) 그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보배로운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즐기는 의인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영혼을 엄습하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도에게 그 큰 사랑의 부으심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21. Those who abide in God's love (Psalm 36:1-12) 2006. 4.5.

Those who fear the Lord are those who abide in God's love. No matter what he faces, the greatest happiness comes from being in the presence of God. How did David, who had this fear, live even though he was surrounded by enemies? Like Psalm 1, the text shows the contrasting aspects of life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First, attitude. Let the fear of the Lord be shared. The reason why wicked people have no fear of God is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consciousness of the existence of God (Coram Deo) in their hearts. (1) We cannot have awe because atheism and agnosticism (natural theism) dominate. He is arrogant because he does not believe in God's omnipresence and judgment. (2) He plots sin in secret but has no shame or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However, because a righteous person thinks and acts before God, his heart is humble, shameful, and chaste. Second, Life. Just as water gushes from a spring, sin and deceit (falseness) gush out from the heart of the wicked, and the fruits of ignorance and wrongdoing appear. (3) They eat and enjoy sin. Unlike him, a righteous person looks at and enjoys God's kindness in the sky, his faithfulness in the air, and his righteousness like a high mountain,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Moreover, in times of trouble, he prefers to take refuge under the wings of the Lord, drinking from the rich rivers of sincerity and love that flow from him. Just as the sun illuminates the whole



world, everything is judged in front of Christ, the source of life and light, and His Word, and we break our own will and live according to His will. (8-9)

Third, Result. Even though their attitudes and fruits are different, they continue to live in it. (10-12) Because they know well how rich and precious his love is. A righteous person who knows and enjoys the love of God will experience the love of God that overtakes his soul even at the last moment. The saints who meditate on the sufferings of the Lord will surely receive that great outpouring of love.

## 22. 원수공격을 이긴 믿음의 기도(시35:1-28) 2006. 3.29

앵무새는 7분에 87회 변조음을 낸다고 합니다. 고난에 연단된 성도는  
인격 변화와 함께 천상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본문의 다윗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수의 멸망을 기도하던(1-6)  
그가 마지막 28절에 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맹렬한 원수의 공격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가  
어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가 당한 맹렬한 공격은 어떤  
것인가요? 7-10절 에 보면 원수는 무고한 다윗을 웅덩이 속에 그물을  
만들어 줄지에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세력을 이루어 모의하며 자기  
들끼리 눈짓하며 연회장에서 조롱하며 이를 갈며 꾀계를 꾸  
몹니다.(15-16,19-20) 무지막지한 공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을 생각해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의하여 그를 십자가형으로  
넘길 때 종교지도자들도 제자들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의 억울한 죽음은 자 기 백성인 우리를 위한 것임이  
늦게 알려졌습니다. 둘째, 이때 다윗은 믿음의 기도로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 다. 그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1-6) 하나님의 의만이 이들을 이김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맥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로  
대항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으로 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가 드러나 원수로 개가를 부르지 못하기를 구했습니다.(21-28) 다른  
하나는 원 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게 우리는 복을 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사혹을 받아 악한 일을 하는 사 람들의

영혼을 보고 공허히 여기는 기도는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원수가 병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며 모친상을 당한 자의 애곡처럼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그 평안이 다윗에게 돌아와 종일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환난 중일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찬송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읍시다.

## 22. Prayer of faith that overcomes enemy attacks (Psalm 35:1-28) March 29, 2006

It is said that parrots make modulated sounds 87 times in 7 minutes. Saints who have been refined through hardships can sing the beautiful songs of heaven along with a change in personality.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was David in the text. This is because at first he prayed for the destruction of his enemies (1-6), but in the last verse 28 he appears as someone praising God all day long. Here we can learn what the prayer of faith is like to overcome the fierce attacks of enemies. First, what kind of fierce attack did he suffer? In verses 7-10, the enemy made a net for the innocent David in a puddle and tried to catch him and kill him. He formed a group and plotted with them, taunting them in the banquet hall, gnashing their teeth, and plotting a scheme (15-16, 19-20) It was a brutal attack. It reminds me of Christ's suffering on the cross. When the Sanhedrin conspired to crucify him, the religious leaders and disciples misunderstood that he was "dying for his own sins." It was later revealed that his unjust death was for the sake of us, his people. Second, at this time, David overcame this problem through prayer of faith. The prayer exhibits two characteristics. One is that God himself wants to fight. (1-6) Because they knew well that only God's righteousness could overcome them.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we just sit there and do nothing. Although

they fought back with weapons, they completely relied on God's righteousness. It's like David, who defeated Goliath, did so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So he prayed that justice would be revealed and that his enemies would not be punished. (21-28) The other prayed for his enemies. We cannot ask for blessings from God's enemies. However, it is a believer's duty to pray for the souls of those who commit evil acts under the influence of the devil and show compassion. When his enemy was sick and in difficult times, he fasted and prayed like the wailing of his mother. The peace he prayed for returned to David and allowed him to praise God's righteousness all day long. Even in times of tribulation, if you pray with faith, the day of praise will surely come. Let us walk this path of faith.

### 23. 여호와 경외자의 노래(시34:1-22) 2006. 3.22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경외와 달리 그리스도인은 마음 속 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경외심으로 인해 항상 여호와를 찬 송할수 있습니다. 그 본중 하나가 시편 34편의 다윗의 경우 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혹심한 고난을 당하는 중 드린 그의 찬송과 기도를 살펴보면 경외심이란 어떤 것이며 이 경 외심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체험과 이것을 증진시키는 길 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여호와 경외자란? 1-2절에 보면 경외란 참 믿음의 골자이기에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환난 날에 회개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만이 유일한 피난처이며 그 안에 있는 은혜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영혼 깊은 데서부터 여호와를 자랑하며 송축하게 되는 것이 산 믿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최고 경의를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외가 회중의 경외로 나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3) 둘째, 경외자에게 임하는 복은? 1)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 을 받습니다.(4-7) 양망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 보호해줍니다. 2) 부족함이 없는 모든 좋은 것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9-10)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고 누립니다. (8) 3) 생명의 풍성함과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11-17) 뼈가 하나 도 꺾이지 않는 절대 보호를 받습니다. 셋째, 그러면 어떻게 경외심이 증진되니까? 자기 마음에서 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을 고백하며 환난 날에 그의 말씀을 묵상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증진됩니다. 그리고 상 한

마음으로 통회할 때 경외심이 생깁니다. 여호와 양망하는 심령위에 임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로 자라갑시다.

23. Song of those who fear the Lord (Psalm 34:1-22) 2006. 3.22

Unlike the false reverence of the world, Christians can always praise Jehovah because of the everlasting reverence in their hearts. One of the examples is the case of David in Psalm 34. Looking at the praise and prayer he offered while undergoing severe suffering in front of Abimelech, it clearly shows what reverence is, the experiences that occur to those who have this reverence, and the ways to promote it. First, what is a person who fears Jehovah? In verses 1-2, fear is the essence of true faith, so David always praises the Lord, repents in times of trouble, and cries out to God. Because he is the only refuge and I know the taste of grace within him. This is because the characteristic of living faith is to boast and bless Jehovah “always” from the depths of one’s soul. Problems begin to be solved when we truly exalt God and give him the highest respect in any situation. That's why David wanted his reverence to spread to the reverence of the congregation.(3) Second, what are the blessings that come to those who fear? 1) You will be delivered from all fear. (4-7) The light of Jehovah comes to those who wait, and the angel of Jehovah appears and protects them. 2) All good things that we lack are given as gifts. (9-10) Those who take refuge in Jehovah taste and enjoy his goodness and love. (8) 3) You will receive the blessings of abundance of life, longevity, and peace. (11-17) You will receive absolute protection so that not a single bone is broken. Third, how then is reverence promoted? It is promoted through looking to God from one's own heart, confessing His love, meditating on His Word, and crying out in prayer in the day of trouble. And when a broken and contrite

heart arises, awe arises. Let us grow into saints who experience the power that comes upon the heart that waits on the Lord.

## 24.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시33:1-22) 2006.3.16

시편 33편은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입니다. 형식적 찬양 이 아닌 생명체의 움직임 같은 반응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영적 기능이 활발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어떻게 왜 찬양했습니까? 첫째,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1)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즐기는 것(enjoying God)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맛 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의는 믿음으로만 얻어지기 때문 입니다. 구원받으면 자연히 감사가 나오고 찬양하게 되고 그 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감격으로 찬양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합니다. 둘째, 무엇으로 찬송해야했습니까?(2-3) 수금과 열줄 비 파와 같은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했으며 무엇보다 영혼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터쳐 나온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와 공교 한 연주로 찬양했습니다. 문화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찬양하 되 특히 자기 영혼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마리아처럼(눅2:),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행16) 모든 지체를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해야합니다. 셋째,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합니까?(4-5) 말씀의 정직 성과 하나님의 진실한 행사 곧, 정의, 공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보고 찬양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성품을 온 세상에 가득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진실과 의와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천지 와 바다, 만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도 모는 견고하며 영영히 섭니다. 바로 이 창조와 섭리의 말씀 에 사로잡힐 때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들은 모든 인생의 행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디어 그의 구원하 심을 찬양해야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와  
복을 누리는 길입니 다

#### 24.Reasons to Praise Jehovah (Psalm 33:1-22) 2006.3.16

Psalm 33 is a praise song for saved saints. It is not a formal praise, but a natural hymn that comes from a reaction like the movement of a living being. This is evidence that your spiritual function is active due to the joy of being saved. How and why did he praise? First, what honest people should do is to rejoice, give thanks, and praise Jehovah. (1) Enjoying God (enjoying God), which is man's primary purpose, is a privilege that only Christians can experience. This is because righteousness is obtained only through faith. When you are saved, you will naturally feel grateful, praise, and enjoy Him. We must live a life filled with praise with this kind of emotion. Second, what should we sing with? (2-3) We praised with musical instruments such as the harp and ten-stringed lute, and above all, with new songs and joyful sounds that burst from the soul with the joy of salvation, and with skillful playing. God will accept you when you sing with all your cultural means, but especially when you sing with your soul. Like Mary (Luke 2:) and like Paul and Silas in the Philippian prison (Acts 16), we must make every member an instrument of praise. Third, why should we praise Jehovah? (4-5) We praised God after seeing the honesty of His words and the true deeds of God, which are full of justice, righteousness, and love. Jehovah wants to fill the whole world with his personality. He wanted to reveal his truth, righteousness, and love through his words. The Word of Jehovah created and governs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ings. So his Tao and Mo are solid and will stand forever. When we are captivated by these very words of creation and

providence, we praise. We who have made Jehovah our God must humbly bow down before God, who watches over all the events of life, and praise His salvation. This is the way to enjoy Jehovah's blessings

## 25. 죄 사함의 은총(시32:1-11) 2006. 3.9.

앞선 시편에는 고난 속에서의 구원을 감사하는 찬송이 많 았지만 본문은 죄로 인한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보 여줍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죄 가 리움을 받은 자의 행복에 관한 다윗의 체험(롬4:7-8)을 인용 하여 속죄의 은총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맛본 죄 사함의 은 총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는 죄 사함의 은혜가 복중의 복임을 확신했습니 다. (1-2) 허물이 용서되고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구속은 죄 사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 니다.(엡1:7)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 죄를 고백했습니다.(3-4) 죄 고백하지 않을 때는 종 일 신음하며 심령이 메말랐습니 다. 재갈을 물여 통제하는 말 이나 노새처럼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9) 그런 다윗이 죄 를 토해낼 때 모든 악이 즉시 사해졌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 았으며 자기의 갈 길을 친히 알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범람 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며 여호와만이 은신처임을 체험하 게 된 것입니다.(6-8) 자기 죄를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자복 하였을 때 기억지 아니하시고 즉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죄 자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처리된 것 을 믿고 진실되이 죄를 시인하고 그 공로를 감사함으로 받 을 때 죄 사함의 은혜는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죄 사함의 은총이 란 하나님사랑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 함은

하나님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사랑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10) 그 결과 여호와만을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거하기 위해 진정한  
회개인이 됩니다.

## 25. The grace of forgiveness of sins (Psalm 32:1-11) 2006. 3.9.

In the previous psalms, there were many hymns expressing gratitude for  
salvation in suffering, but the text shows how to escape from despair caused  
by sin. Later, when Paul explains salvation in Romans, he explains the grace  
of atonement by quoting David's experience of the happiness of those who  
have been covered from sin (Romans 4:7-8). What is the grace of forgiveness  
of sin that David experienced? First, he was convinced that the grace of  
forgiveness of sins was a blessing in the womb. (1-2) It was declared that  
those whose faults are forgiven and who do not face condemnation are blessed.  
This is because true redemption begins with the forgiveness of sins.  
(Ephesians 1:7) Those whose sin problems have not been resolved are those  
who have not been saved. No matter how many sins you have, if you truly  
repent and believe in the merits of Christ, you will be forgiven by God. The  
person who enjoys that happiness is a Christian. Second, he confessed his sins  
(3-4) When he did not confess his sins, he groaned all day long and his spirit  
was dry. He lived a foolish life like a horse or a mule that is restrained by a bit.  
(9) When David vomited out his sins, all his evil was immediately forgiven,  
he was protected by God, and he personally knew the path he should take. He  
experienced that even the flood could not reach him and that only Jehovah  
was his refuge (6-8) Because when he acknowledged his sin and confessed it  
instead of hiding it, he did not remember it and immediately forgave him.

This is the confession of sin in 1 John 1:9. The grace of forgiveness of sins comes to me when I believe that all my sins were taken care of when the Lord died on the cross 2,000 years ago, and when I truly admit my sins and receive the merits with gratitude. Third, he experienced God's love. The grace of forgiveness of sins is the experience of God's love. Trusting God's faithful promises means trusting God Himself. The Holy Spirit is poured on this person and an experience of love occurs. (10) As a result, he or she enjoys only Jehovah and goes to places to praise Him. Let us become people of true repentance in order to abide in God's love.

## 26. 담대한 신앙(시31:1-24) 2006. 2.22

신앙의 생명은 담력입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라 고 하며 확증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담력이 없는 작은 믿음은 불신앙이고 의심 하는 믿음은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고전 13:5)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최대관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신앙을 갖는데 있었습니다. 본문의 고난 중에 보인 다윗의 모습이 그런 담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있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의 연합입니다.(요1:12) 연합되었기에 고난 당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두 번이나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것도 속히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며 자신을 지도하 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1-3,15-18)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모든 좋은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부요로 인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감찰하심을 알고 담력이 생겼 습니다. 다윗이 기도에서 원수의 흉악한 꾀계로 그가 난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허탄을 숭상하고 거짓입술 로 은밀한 그물을 쳐 다윗을 궁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 나 그는 "주께서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자기 영 을 아셨고 그의 발을 넓은 곳에 두셨음"을 알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즐거움이고 찬양의 근거였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14) 셋째,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담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연합된 주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문제를 모두 주님께

위탁한 다윗은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23) 담대한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맛 본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인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 26. Bold Faith (Psalm 31:1-24) 2006. 2.22

The life of faith is courage. Additionally, Paul says, "Test your faith for yourself, and if you do not have confirmation, you are a reprobate." Therefore, Apostle Paul says that a little faith without courage is unbelief, and a faith that doubts cannot gain anything. (1 Corinthians 13) :5) So, our Lord's greatest concern for us was not being afraid and having bold faith. How was David able to have such bold faith during the suffering? He believed that he was united with God and prayed. Faith is unity with the Lord. (John 1:12) Because he was united, he prayed when he was suffering. He prayed earnestly twice for God to save him quickly. I cried out to God for guidance and guidance. (1-3, 15-18) Christians who are united with Jesus can taste all the good things of the Lord and be courageous in any hardship. Second, knowing that God was observing, David gained courage. In his prayers, it was revealed that he was in trouble due to the evil tricks of the enemy. They venerated vanity and spread a secret net with lying lips to trap him. But he was able to be of good courage, knowing that "the Lord has seen the troubles and has known his spirit in the affliction, and has set his feet in broad places." This was his joy and the basis of his praise." I was able to confess that the Lord is my God. (14) Third, I was able to have courage by completely relying on Jehovah. David, who knew that the united Lord knew him and entrusted all his problems to the Lord, was able to praise God with bold faith and declare to be strong and

courageous. (23) The goal of bold faith is the people we meet. It is to acknowledge the face of God, the voice of God, and the dealings of God that I have tasted. This enables us to overcome all tribulations.



## 27. 영원한 감사 (시30:1-12) 2006. 2.22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된 우리 구원은 자아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공격하며 십자가를 뺄게하도록 유혹 합니다. 구약의 다윗도 이 유혹과 자아부인과 십자가 지는 과정을 거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다윗의 처지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하나님 의 징계를 받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잠깐의 노염과 저녁의 울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죄 때문이지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는 진정으로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그런 처지를 당할 때야 말로 자아부인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목숨(자아)을 잃는 진리를 잘 배워야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주로 높이고 그가 자기를 진토에서 건지셨음을 말함으로서 자아부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영혼깊이 배워 자기를 종으로 철저히 인정할 때 자기 목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마5:3) 둘째,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용광로 의 불과 같습니다.(9-10)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는 새롭게 빛 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만이 자기를 살리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그에게 매달립니다.(9-10) 한 알의 밀이 죽어 열매를 나타내는 시간임을 봅니다.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빌4:6-7) 셋째, 그 결과는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살어나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죽을 때 오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신앙 (6), 슬픔이 춤으로, 베옷이 기쁨의 옷으로 바뀌고(11) 영원 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12)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 27. Eternal Gratitude (Psalm 30:1-12) 2006. 2.22

Our salvation begins with knowing Christ, and we experience abundant grace through self-denial and bearing our cross. The devil always attacks our thoughts and tempts us to abandon the cross. David in the Old Testament also went through this process of temptation, self-denial, and bearing the cross, so he could enjoy an abundant life and praise God forever. First, David's situation was like one going down to the grave, where he was disciplined by God. There was a brief burst of anger and an evening cry. Although it is not clear what sin he committed, he is truly sad and repentant. Only when you are in such a situation is an opportunity to learn self-denial. Therefore, we must learn the truth about losing our own life (self). David showed his self-denial by exalting the Lord as Lord and saying that He had delivered him from the dust. Without the Lord. This is because you can save your life when you learn deeply in your soul that you are nothing and thoroughly acknowledge yourself as a servant. The blessing of the poor in spirit applies here as well (Matthew 5:3). Second, he prayed. Prayer is like a fire in a furnace that kills the self. (9-10) This is because we are created anew in the closet of prayer. Look at his prayer. Knowing that only Jehovah is King and that only God's mercy and help can save him, he clings entirely to Him. (9-10) We see that this is the time when a grain of wheat dies and produces fruit. A change in thinking can lead to a change in behavior. (Philippians 4:6-7) Third, the result was an abundant life. The coming to life and bearing much fruit comes when we die.

Unwavering faith (6), sorrow turns into dancing, sackcloth turns into clothes of joy (11), and gives eternal gratitude and praise. (12) True Christian gratitude and praise is a gift that comes only to those who bear the cross. . Because we know that anger is temporary, but God's grace is eternal.

## 28. 구원의 산성(시28:1-9) 2006. 2.28

애가시(1) 혹은, 제왕시(8)나 질병 가운데 드린 기도시로 알려진 28편은 앞선 26편과 27편과 같은 부류에 넣는 것은 고난 중 기도함으로 구원의 응답을 체험한 내용이기 때 문입니다. 시인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지경에서 여호와께 부 르짖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가 당한 무덤 의 환경은 질고라기보다 민족적으로 추방당할 위기를 가리 칩니다. 압살롬처럼 화평의 얼굴로 말하나 속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들에게(3-5) 억울한 일을 당한 매우 고독한 처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에게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 롬에게 배반을 당하는 치명적인 위협도 있었고 시글락에서 의 참패로 따르던 심복들이 돌변하여 돌로 죽이려는 지옥 같은 환경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때 다윗은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2절에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 는 그의 간구는 은혜받을 자의 태도를 지녔습니다. 모든 것 을 포기하고 주께 항복하며 주님에게 전적 달라붙는 믿음으 로 응답을 받아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6-7) 하나님을 반석, 힘, 구원으로 고백하던 것이 목자 (shepherd) 로 말합니다. 반석이란 받쳐주는 기초로 보호의 식을 갖게 했다면 목자는 그 분과의 인격적 교감이 오가는 친밀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밀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말 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에 가라지와 알곡을 그대로 두게 하시 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 깊은 교제 즉, 임마누엘의 깊은 경험을 누리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덤 같은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주 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석에 물이 터 지는 기적의  
체험도 귀하지만 주님과 주고받는 목자와 양과 의 친밀함이 더 귀합니다.  
이 친밀함을 체험하기 위해 고난 의 날에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 28. Fortress of Salvation (Psalm 28:1-9) 2006. 2.28

Psalm 28, known as Lamentations (1), Caesar Psalm (8), or a prayer poem offered in the midst of illness, is included in the same category as the previous Psalms 26 and 27 because it is about experiencing the response of salvation through prayer during suffering. no see. The poet cries out to Jehovah like a person going down to the grave and restores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The circumstances of his tomb indicate a crisis of national expulsion rather than distress. This is because we see him in a very lonely situation, having been wronged by people who, like Absalom, speak with a peaceful face but are malicious on the inside (3-5). David faced the fatal threat of being betrayed by his father-in-law Saul and his most beloved son, Absalom, and experienced a hellish environment in which his followers turned around and tried to stone him to death after the crushing defeat at Ziklag, but he gained courage because of God. At this time, David uses Jehovah as his rock and goes to God and cries out. In verse 2, his prayer, raising his hands toward the Lord's sanctuary and crying out, had the attitude of one who would receive grace. He gave up everything, surrendered to the Lord, received the answer with faith that clung completely to the Lord, and became a person who sang with joy. (6-7) The person who confessed God as rock, strength, and salvation is referred to as a shepherd. While a rock is a foundation that provides support and provides a sense of protection, a shepherd is an intimate relationship of

personal communication with that person. In other words, the intimate relationship has become deeper. This is the reason and purpose of allowing the crisis. This is the reason why the tares and wheat remain in the church in the world. It is to enable you to enjoy deep fellowship with God, that is, a deep experience of Immanuel. Therefore, even in grave-like situations, we must not be discouraged and go forward in prayer crying out to the Lord. The miraculous experience of water bursting from a rock is precious, but the intimacy between the shepherd and the sheep exchanged with the Lord is even more precious. In order to experience this intimacy, I hope you become a believer who strives to pray on days of suffering

## 29. 여호와와 소리(시29:1-11) 2006. 2.15

시인은 온 우주와 세상만사에 꼭 찬 여호와와 권위 (authority)의 영광(gory)과 말씀(words)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1) 여호와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만이 모든 영역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친히 다 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3-9절에는 자연현상 가운데 친히 간섭하심을 지적 하여 그의 왕되심을 밝힙니다. 그분의 크고 깊고 넓고 높은 세심한 통치는 대양의 물결이나 뇌성, 꺾이고 부서진 레바논 의 백향목, 폭풍우에 흔들리는 산림, 광야를 진동하는 천둥 과 화염을 가르는 번개같은 자연법칙의 운행 뿐 아니라, 암 사슴 한 마리의 낙태하는 일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이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구원하셔서 의를 세우시는 절대 왕이십니다. 노아시대에 전면적으로 임 한 홍수로 인해 일그러진 땅을 하나님의 입김으로 회복시키 셧듯이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억만 죄가운데서 구하시는 구원의 왕이십니다.(10) 그런데 다윗을 더욱 감동시킨 것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 실패 그 왕은 자신의 소리 곧 말씀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 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 그의 말씀이 온 우주에 충만했기 때 문입니다. 이 말씀이 성문화 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의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만사를 친히 다스리시는 만군의 왕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그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능을 받고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11) 누 구든지 현재 있는 거기서

성경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다윗처럼 그를 진실로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29. The Voice of the Lord (Psalm 29:1-11) 2006. 2.15

The poet praises the glory of Jehovah's authority and the greatness of his words, which permeate the entire universe and all things in the world. (1) The clear reason why we must give glory only to Jehovah is that he is the King over all realms. This is because he sits on his throne and personally rules over the whole world. In particular, verses 3-9 reveal His kingship by pointing out His personal intervention in natural phenomena. His careful rule, big, deep, wide, and high, is not only the operation of natural laws such as ocean waves or thunder, broken and broken cedar trees in Lebanon, forests shaken by storms, thunder shaking the wilderness and lightning splitting flames, but also the action of a deer. This includes everything, even abortion. God is the absolute King who heals, saves, and establishes righteousness not only in this natural phenomenon but also in the whirlpool of all problems that arise in human relationships. Just as God restored the land that was distorted by the flood that came in Noah's time with the breath of God, He is the King of salvation who saves His people from billions of sins as He promised. (10) But what moved David even more. What is true is that when this amazing work is accomplished, the King does so with his own voice, that is, his word. The reason why knowledge was passed from day to day and night to night to reveal the glory of God was because His word filled the entire universe. The Bible is the codification of these words. The reason Christians believe in and obey the authority of the Bible is because Jehovah, the King of hosts, who personally governs all things through the Word, speaks through the Bible.



Therefore, those who recognize His sovereignty and royal authority in all things will surely receive power and enjoy the blessings of peace. (11)  
Anyone who obeys the Bible where they ar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ruly worship Him like David did. no see.

### 30. 너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시27:1-14) 2006. 1.25

다윗은 원수들의 거짓된 고소와 조롱으로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부모형제라도 소망이 없 다고 버리는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병상 에 드린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담대 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1,14) 첫째,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 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주의 제단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기도와 찬미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친밀하였습니다. 천하가 다 버려도 하나님 만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은 것 입니다. 그래서 생사가 오가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13)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 사합니다. 셋째, 그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원수의 군 대가 진을 치고 자기 살을 먹으려고 왔고 전쟁을 일으켰으 나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 도리어 안연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런 절박한 환경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는 연단의 터전이었습니다. " 여러분에게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그리며 주목하여 그에게 구하기 바랍니다. 의와 진실 과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은 반드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칩니다. 이 사모심으로 충만 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 30. Seek the face of your God (Psalm 27:1-14) 2006. 1.25

David is in a miserable position due to the false accusations and ridicule of his enemies. He was so miserable that even his parents and siblings abandoned him, saying they had no hope. So this psalm is known as a prayer offered at a sickbed. How was David able to have courage at this time? (1,14) First, because he focused on the face of God. He desired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while I live, to look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long for it. This was his lifelong wish. Based on God's words to seek my face, he offered a joyful sacrifice on the altar of the Lord and an offering of prayer and praise. I asked for God's abundant mercy. This prayer was answered. Second, because he asked in faith. David had a close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He believed that even if the whole world had abandoned God, he was my light, my salvation, and the power of my life. So, he believed that he would see the face of God's grace on his sickbed, where he was between life and death. (13) The prayer of faith always works. Third, because he experienced grace. The armies of his enemies were encamped and came to eat his flesh and make war, but he was not afraid or afraid, but rather calm. Even in the midst of tribulation, I was able to hope in Jehovah with strength and courage. This desperate environment was the foundation for David's refinement that made him great. "No matter what difficulties you may face, I hope you will look at God's beautiful face and ask Him. We are full of hope because the Lord, who is full of righteousness, truth, and love, will always answer with grace. This longing I wish you all to be filled with .

### 31. 완전한 행위(시26:1-12) 2006. 1. 25

주님은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구원이 거룩케 하는 과정을 통해 완전한 행위인 영화에 이르기를 원 하십니다. 시편 26편에 나온 다윗의 몸부림은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삶을 이룰 수 있나 요? 첫째,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1-2) 자기 행실의 뿌리인 마음의 의지가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했고 허망과 간사가 없는 진실의 삶을 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진 실에 폭 빠질 때만이 완전해 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 다. (시139:) 위대한 삶은 매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 는 마음으로 살 때 이루어 집니다. 둘째, 악인의 모임을 경계했습니다.(5) 그는 주변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자극적인 것을 알았기에 행악자의 집회에 가 지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 다. 죄를 이기는 길은 예방함 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죄와 싸우는 것이며 이 싸움이 충만한 것이 복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합니 다.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면서 감사와 찬송의 제물을 드립 니다.(6-7)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임재한 장소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8) 악독과 뇌물을 즐기는 악인의 행동과는 달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즐겼습니다.(9-10) 그래서 곳을 때에도 그러했지만 평탄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구속과 공휼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오직 하 나님 앞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 실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행복과 헌신의 삶만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이 일을 위해 우리 속에서 부단히 일하심을 잊지 말고 그분의 뜻에 따라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로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31. Perfect Action (Psalm 26:1-12) January 25, 2006

The Lord wants our salvation, which begins with being recognized as righteous, to reach glorification, a complete act, through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David's struggle in Psalm 26 shows him going through this process. How can one achieve a perfect life? First, we must strive to be judged by God. (1-2) He wanted the will of his heart, the root of his conduct, to be holy. That is why he wanted to be filled with the love of the Lord and sought a life of truth, free from vanity and deceit. Because he knew that he could only become perfect when he was immersed in the love and truth of God. (Psalm 139:) A great life is achieved when you live with a heart that is refined before God every day. Second, he was wary of the gatherings of evildoers. (5) He knew how irritating the influence of his surroundings was, so he did not go to the gatherings of evildoers and did not stay with them. This is because the way to overcome sin is through prevention. The effort to escape the effects of sin is a fight against sin, and the fulfillment of this fight is a blessing. Third, we must focus our lives on worship to God. I go around the Lord's altar and offer sacrifices of thanks and praise. (6-7) I loved the place of the Lord's presence more than anything else. (8) Unlike the actions of wicked people who enjoy malice and bribery, I had fellowship with the Lord. I enjoyed my time as a top priority. (9-10) That's why I earnestly prayed for God's redemption and mercy, not only in bad times, but also in smooth times.

True holiness is possible only before God. Only a life of surrender and devotion to God, offering one's thoughts, words, and deeds as a living sacrifice every day, is the way to live as the bride of Christ without blemish or spot. We must not forget that the Holy Spirit is constantly working within us for this purpose, and we must humbly obey His will. I sincerely hope that I will become a saint who fights sin and lives a holy life with the love and truth of God.

### 32. 이스라엘의 탄원(시125:1-22) 2006. 1.18

알파벳 시편으로 알려진 25편은 악인의 공격과 과거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앙망하여 그에게 탄원함으로 이를 극복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편 1편에는 악인과 의인의 두 길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 지만 본 시편은 정작 선택의 기로에서 의의 길을 택하는 일 은 많은 고민이 따른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공감이가고 친밀감을 더해 줍니다. 다윗은 영적 패배의 저변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을 우러 러 보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수치심 속에서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수치를 면케 하리라"는 변 치 않는 그분의 약속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3) 또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도와 진리로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4-5) 큰 약속에 근거를 두었다하여 안일한 태도를 취하지 않 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겸손하게 나아가 기도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절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죄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원수의 곤경 때문에 괴롭고 외로운 영적공허에 떨어져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만 을 종일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 다고 철석같이 믿은 것입니다. 마침내 시인은 죄 사함의 확신과 평탄한 영혼을 소유했 고 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물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 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랑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온유한 자의 몫입니다. 시인의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민입니다. 이중 적 고민에 사로 잡힌 외롭고

괴로운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직 주를  
앙망해야 합니다. 이길을 따름으로 상상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32. Israel's Petition (Psalm 125:1-22) 2006. 1.18

Psalm 25, known as the Alphabet Psalm, is about David, who was troubled and distressed by the attacks of the wicked and his past sins, and overcame them by looking to God and pleading with Him. Psalm 1 asks us to choose between the two paths of the wicked and the righteous, but this psalm clearly shows that choosing the path of righteousness at the crossroads of choice comes with many worries. Because this is a real-life problem, it becomes more relatable and intimate. When David sighs at the bottom of his spiritual defeat, he looks up to God and cries out. In the shame of shattering the sacred pride of God's children, I prayed that the enemy would not allow me to repent. This prayer is based on His unchanging promise, "I will keep you from shame." (3) David also knew well the way God would respond. He cries out for the Lord to teach him the way with truth (4-5). He does not take a complacent attitude based on great promises. Relying on God's love and mercy, we humbly come forward and pray. He prays in despair for two reasons. One is because of past sins and the other is because of the plight of many enemies. They fall into a painful and lonely spiritual void and struggle, looking only at God all day long. I firmly believed that only God could solve this problem. Finally, the poet had assurance of forgiveness of sins, a peaceful soul, and became the heir of the earth. He was completely out of the net. Above all, I enjoyed the privilege of loving and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This is the portion of the meek who keep the covenant and the testimony. The



poet's suffering is the real-life worry we face. We must rely on God's love and look only to the Lord on this lonely and painful narrow path, caught up in double worries. I hope that by following this path, you will become believers who experience God's work that goes beyond imagination.

### 33. 성산에 거할 자(시24:1-10) 2006. 1. 1

주후 2세기, 로마 역사가 플리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에 한 장소에 모여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애찬을 나누며 시편 24편을 찬송했다고 전합니다. 본문은 창조자 구원자 섭리자이신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그를 경 외함으로 감격으로 영접하라는 예배권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인 것을 지적하면서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선언 합니다.(1) 그리고 땅을 물에서 끌어내신 창조하심의 권능 보다 더 근원적인 그의 활동도 설명합니다.(2) 그러면서 곧이어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자 문하면서 그 자격조항을 제시합니다. 여기 "여호와와 성산" 이란 하나님의 보좌를 지칭합니다. 요한계시록4:-5:에서 우 리는 천상 보좌를 중심으로 한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군천사와 만물을 봅니다. 보좌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곳 에 거할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입니다. 이 도덕 수준은 영적수준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자리에 설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은 영광의 왕이 창조주요 섭리주요 구원자이심을 말하면서 그 분을 영접하라는 권고로 이어집니다. 그 분을 환영하기 위해 겸손히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5:8)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호와와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존귀와 평강의 자리 를 양도할 때 진정한 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성산인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생활에 심혈을 기울여 천국 복을  
깊이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33. Those who dwell in the holy mountain (Psalm 24:1-10) 2006. 1. 1

In the 2nd century AD, Roman historian Pliny reports that Christians gathered in one place on the Lord's Day to worship Christ, share a love feast, and sing Psalm 24. The text declares that only God, the Creator, Savior, and Provider, is the King of glory, and is in the form of a worship exhortation to receive Him with reverence and gratitude. First, David declares Jehovah's sovereignty by pointing out that the area under Jehovah's rule is all things and people in this world.(1) He also explains his activities that are more fundamental than the power of creation that brought the earth out of the water. (2) He then presents the qualifications by asking himself, "Who will climb the mountain of the Lord?" Here, "Jehovah's holy mountain" refers to God's throne. In Revelation 4:-5: we see the four living creatures centered on the heavenly throne, the 24 elders, the host of angels, and all things. The throne refers to God himself. The one who will dwell there is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se mind is not vain and who does not swear falsely. This moral level is premised on the spiritual level. This means that only those who believe in Christ can stand in that position. This is because only through faith can we obtain righteousness and come before God boldly. This psalm tells us that the King of Glory is the Creator, Providence, and Savior and continues with an admonition to receive Him. He is asking us to humbly strive to purify ourselves in order to welcome Him. Because the pure in heart can see God (Matthew 5:8) If he has accepted Christ and become a child of God, he can dwell in the holy mountain of Jehovah. He will experience true blessing when

all honor and peace are handed over to him. Let us become saints who deeply experience the blessings of heaven by dedicating our utmost efforts to living in Christ, God's holy mountain.

#### 34. 신자의 목가(시23:1-6) 2006. 1. 4

먼저 신자는 주님과 개인적 관계 때문에 노래합니다. 목자는 반석, 능력, 복이란 개념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보여 주는 말입니다. 여호와와는 양을 거느리는 목자이고 다윗은 그의 양으로 인도를 받기에 최대 최고의 만족을 누립니다. 신자는 말씀을 잘 먹어야하고 그리스도안에 평안을 누림으로 영적만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 부흥과 소생의 은혜를 받기에 찬양합니다. 또 주님 영광위한 의의 목적과 표준을 알고 행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릅니다. 셋째, 그는 절대보호로 인해 찬양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확신과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구원의 지팡이와 맹수의 공격을 퇴치하는 막대기로 철저히 지키시는 보호의식으로 감격하는 것입니다. 넷째, 원수 목전에 높여주신다는 것, 사망의 길을 지나는 영전에 승리의 상급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신자로 찬송하게 합니다. 그 상이란 기름 곧, 성령을 가리키며 그의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신자가 받을 최고의 상급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입니다. 이 기름은 우리 평생에 약속된 것이고 그의 착하심과 인자을 맛보는 체험으로 나타나는 복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줄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눈은 물질의 복에서 여호와 자신의 복으로 옮겨집니다.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전주곡으로 이미 아버지 집에 사는 자인 줄 알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지만 문제의 키를 가진 만능의 해결사로서 사는 것이기에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목자로 두고 따르는

자가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금년 향해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 늘 목가가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 34. Believer's Pastoral Song (Psalm 23:1-6) January 4, 2006

First, believers sing because of their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A shepherd is more than a rock, power, or blessing. This is a word that shows a close relationship. Jehovah is the shepherd of the sheep, and David enjoys the greatest satisfaction in being led by his sheep. Believers must eat the Word well and gain spiritual satisfaction by enjoying peace in Christ. Next, believers praise because they receive the grace of revival and revival when they are discouraged and despairing. And because we know and practice the purpose and standards of righteousness for the glory of the Lord, we rejoice and sing joyful hymns. Thirdly, he is praised for his absolute protection. We are deeply moved by the confidence of Immanuel, who is with us as we pass through the valley of death, and by the sense of protection he provides with his staff of salvation that rescues sheep that fall into pits and his stick that wards off attacks from wild beasts. Fourth, the fact that God is exalted before the eyes of the enemy and that the reward of victory has been prepared for those who pass the path of death makes us praise as believers. The reward refers to the oil, the Holy Spirit, and his abundant grace. The greatest reward a believer will receive is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It is an experience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is oil is promised throughout our lives and is a blessing that appears through the experience of tasting His goodness and mercy. This cord of love is something that no one can break. Finally, David's eyes move from material blessings to the blessings of Jehovah himself. As a prelude to eternal residence in the house of the Lord, we are thrilled to know

that we are already living in our Father's house. The world is rough, but we can go out with praise because we live as omnipotent solvers who have the key to solving problems. These are the reasons why those who follow Jehovah as their shepherd have no choice but to sing hymns. I hope that your soul will be filled with heavenly pastoral music as you sail this year.

### 35. 메시아의 수난 (시22:1-31) 2006. 12. 7

"그리스도의 탄생 구유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주전 1200년 전 다윗이 당한 고난의 환경에서 예언한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점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1절의 절규는 성부로부터 버림받은 성자의 고난을 보이고(마27:46), 7절에 보는 자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십자가상의 주님을 향해 퍼부었던 행인들의 무정한 행동이었으며(마27:39-43) 15절에는 체형으로 인한 목마름을 리얼하게 묘사하였으며(요19:28) 그리고 18절에는 그리스도의 속옷을 제비 뽑는 일이 문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예시에 놀라게 됩니다.(요19:24) 그는 사자 이빨에 물어뜯기는 것 같아 물같이 쏟아졌으며 뼈는 어그러졌고 마음은 찢밀 같이 녹아내렸습니다. (13-14) 다윗은 원수를 가리켜 "칼, 개, 사자, 들소 뿔"로 비유하여 그 무자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수난은 목적이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믿는 자는 소망을 갖습니다. 다윗은 4가지 복을 확신했습니다. 찬송하는 자가 되었고(25) 영생을 가졌으며(26) 열방의 회개(27-28)와 온 세계에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29-31) 다윗이 당한 고난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 영광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언대로 고난당하셨고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예언대로 보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 속에 그리스도의 수난을 보는 자가 되어 성탄의 진의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35. The Passion of the Messiah (Psalm 22:1-31) December 7, 2006

There is a saying: "You should be able to see the cross in the manger where Christ was born." Because Christ saved his people from sin. Psalm 22 prophesied this fact in the circumstances of suffering that David faced 1200 B.C. First of all, we are surprised to see how clearly Christ's suffering is depicted in the text. The cry in verse 1 shows the suffering of the Son who was abandoned by the Father (Matthew 27:46), and the scorn and ridicule in verse 7 by everyone who saw it was the callous behavior of the passers-by who showered the Lord on the cross (Matthew 27:39-43). ) In verse 15, thirst due to body type is realistically described (John 19:28), and in verse 18, we are surprised by the example of the Holy Spirit because the casting of lots for Christ's underwear was carried out literally (John 19:24). ) He felt as if he had been bitten by a lion's teeth, and it poured out like water, his bones were distorted, and his heart melted like wax. (13-14) David emphasizes his ruthlessness by comparing his enemies to "swords, dogs, lions, and wild ox horns." However, because the passion of Christ has a purpose, those who believe in it have hope. David was confident of four blessings. He is said to have become a praiser (25), to have eternal life (26), to bring about the repentance of the nations (27-28), and to bring this news to the whole world. (29-31) David's suffering was only a shadow, and so was his glory. However, our Lord suffered and enjoyed glory as prophesied. Today, we are seeing and enjoying that grace as prophesied. I pray that you will become a witness to the passion of Christ in his birth and experience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 36.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시87:1-7) 2007. 1. 10

구약에도 하나님나라의 통치 대상은 열방이었고 평강과 의를 중시했습니다.(3.5.7) 예수님이 오심으로 2 나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나라의 왕인 "인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단7:13) 그러므로 이 땅의 복은 그 나라 백성으로 경외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앞에서 떨며 입 맞추는 것으로 그 복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2:11-12) 첫째, 본 시편은 하나님을 공평의 원천, 복의 근원으로 표현했습니다. (1) 태양이 만물의 생장의 근원이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근원입니다. (민 6:24-25, 고후13:13) 이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야베스의 복은 구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상4:10) 둘째,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을 찬양할 이유는 그만이 공평과 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의는 하나님을 떠나 생각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서 나오기에 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공평과 의가 결핍됨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땅이 소산을 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소산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근원적 복인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갈3:14) 이 복은 경외의 찬송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시인은 또한 경외하는 백성의 복을 노래했습니다. (1-7) 복받으면 내적으로 경외의 마음을 가지며 외적으로 찬양하는 삶을 즐깁니다. 환경을 초월한 복을 소유한 여러분들을 한 해의 목표를 노란 자위의 복을 체험하는 것으로 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의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위해 왕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송아지 번제물처럼 바쳐야합니다. 그 길을 걸읍시다.

### 36. People who fear God (Psalm 87:1-7) 2007. 1. 10

Even in the Old Testament, the subjects of the kingdom of God were the nations and centered on peace and righteousness. (3.5.7) With the coming of Jesus, the second kingdom was established on this earth centering on the church. Because the “Son of Man,” the king of that country, has come. (Daniel 7:13) Therefore, the blessing of this land is that its people live a life of reverence and praise. The blessing can be summed up by trembling and kissing the son. (Psalm 2:11-12) First. This psalm expresses God as the source of mercy and blessing. (1) Just as the sun is the source of growth for all things, God is the source of protection, grace, and peace for his people. (Numbers 6:24-25, 2 Corinthians 13:13) If you ask God to bless you, He will surely do it. Because the blessings of Jabez belong to those who seek them. (1 Chronicles 4:10) Second, the reason why all nations should praise God is because He rules with fairness and righteousness. Justice and justice cannot be thought of apart from God, and since He comes from Him, it is centered around Him. Since all problems in the world come from a lack of fairness and righteousness, we must strive to restore this. This is because the Lord’s death and resurrection solved it. Third, the land can produce fruit when it receives God’s blessings. The product of believers is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e who are in Christ must seek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which is the fundamental blessing. (Galatians 3:14) The poet, who showed that this blessing is related to the praise of fear, also sang the blessings of a fearful

people. (1-7) When we are blessed, we have a heart of reverence internally and enjoy a life of praise externally. Those of you who have blessings that transcend your circumstances should set your year's goal as experiencing the blessings of the yellow masturbation. We have now confirmed what the shortcut to fortune is. In order to live a life of fear and praise to Jehovah, we must sacrifice ourselves like a burnt calf sacrifice to God, our King. He said, let's walk that path.

### 37. 하나님을 따르자(시 68:1-18) 2007. 1. 17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쟁사인 이유는 한 죄인이 거듭나면 즉시 영적전쟁터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악의 영 들에 대해 대적하고 싸우는 생활로 점철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기보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 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보장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 하므로 승리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즉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은 원수를 친히 흠여지게 하십니다. 창 조하심과 구원하심과 섭리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 앞서 싸우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의 할 일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악화된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분은 원수를 궤하되 불 속의 밀처럼, 광풍 앞의 연기처럼 악인을 철저히 심판하여 자신의 의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2-3) 하나님은 고아, 과부, 고독한 자, 수금된 자 즉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하시고 거역하는 악인은 불통하여 메마른 땅에 거하게 하십니다. (5-6) 이것이 의인이 기뻐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관건은 의인 속에 있는 선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의 악을 살피 회개 하며 버려야합니다. 악인을 궤하신 그분은 의인을 위하여서는 은택을 준비하시고 언제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소에 거하시는 그 분은 자기 백성의 전쟁 중에서도 함께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길에 수 주간의 양식만을 준비시 키시고 (출12:39) 그 외 모든 필요를 홀로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여러 분의 영전에도 친히 싸우시는 주님을 중심에 모실 때 승리 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 갑시다.

### 37. Let's follow God (Psalm 68:1-18) January 17, 2007

The reason the Christian life is a war is because once a sinner is born again, he immediately enters the spiritual battlefield and is filled with a life of resisting and fighting against evil spirits until he stands before God. However, victory in this fight is guaranteed because God himself fights it rather than us fighting it. We simply obey and thus participate in the victory. So, in Ephesians chapter 6, we are commanded to take and put on the full armor of salvation, the belt of tru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the shoes of the gospel of peace, the shield of faith, and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and pray in the Holy Spirit at all times. The God of victory personally scatters the enemies. In creation, salvation, and providence, He always fights before us and accomplishes His will, so all we have to do is leave everything to Him and trust Him. No matter how bad the situation is, you just have to believe and not be afraid. And the second one destroys his enemies, but like wheat in a fire or like smoke before a storm, he thoroughly judges the wicked and reveals his righteousness to the world. (2-3) God is an orphan. Widow, lonely person. He makes the path of the righteous, that is, the righteous, prosperous, while the rebellious wicked remain barren and dwell in the dry land. (5-6) This is why the righteous will rejoice. The key for us is to first examine our own evil, repent, and abandon it before God, who discerns good and evil in the righteous. He who destroyed the wicked prepared his blessings for the righteous and always allowed them to win. He who dwells in his sanctuary is

with his people in their battles and gives them his grace. God always prepares everything for us, just as He prepared only a few weeks of food for the Israelites on their journey through the wilderness (Exodus 12:39) and provided all other needs alone. You can experience victory when you place the Lord, who is personally fighting in your soul, at the center. Let us move forward boldly, believing in the promise of victory.

### 38. 하나님을 찬양하라(시66:1-20) 2007. 1. 3

새해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과 감사하는 생활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도 찬송, 나쁠 때도 찬양, 즐거운 날이나 곤고한 날, 그 모든 날에 찬양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신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18절에 "성령충만 받아라"고 한 다음, 찬송과 감사 그리고 기쁨과 사랑의 윤리적 생활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캄캄한 밤일수록 별빛이 유난히 더 빛나듯이 환난과 곤고함이 더할수록 참된 찬송과 감사임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엄위와 원수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걸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을 본 사람은 다윗처럼 영적 두려움이 생기는 법입니다. 뱀엘로 도피한 야곱이 신령한 세계를 보고 난 다음, 첫 반응이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눈물어린 기도 후 응답을 체험하고 부른 찬송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살리며, 높이고 낮추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리스도를 이태한 마리아 역시 같은 주제로 찬양했습니다. (눅1:46-55)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그가 환난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주, 구원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다 속에서 육지를 끌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구원주이시며 자기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분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의 모든 일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모든 사건마다 일하시는 하 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 것입니다. 셋째  
알고 보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밤은 찬송을 배우 게 하려는 연단의  
기회였습니다. 마음에 깊이 숨긴 죄악을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감격의 순간 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 (9)" 이십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그의 지도를 받아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으로 가득 찬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 38. Praise God (Psalm 66:1-20) January 3, 2007

I hope that you will live a life that praises God from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This is because a life of praise and gratitude is the most important measure of a believer's faith. This is because a life of praise in good times, praise in bad times, happy days and difficult days, is the fruit of a believ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in Ephesians 5:18, he sai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en said that it follows an ethical life of praise, gratitude, obedience, and love. Just as the starlight shines brighter as the night gets darker, true praise and gratitude grow as hardships and hardships increase. David testifies that this becomes clearer because he saw the majesty of God and the power of God to subdue the enemy. Like David, Jacob's first reaction after fleeing to Bethel was this fear after he prayed with tears in his eyes. What was the hymn that I sung after experiencing the answer? Because I saw that the One who kills and gives life and exalts and humbles me is God. Later, Mary, who was pregnant with Christ, also praised Him on the same topic. Second, look at the majesty of God who always accompanies you. The God

he discovered in his tribulation was the God of creation who pulled the land out of the sea and made it across the sea like land. Thirdly, the saints came to realize that God is not the one who takes over Canaan, but that He is the God who personally governs all the affairs of the nations of the world. The night of suffering was an opportunity for refinement to learn praise, a thrilling moment to repent of the sins hidden deep in our hearts and cry out to God, who saves our souls and does not allow us to fall. It is the Lord (9)". Let us acknowledge and be thankful for God's work every moment of every day, receive His guidance in all things, look forward to great works, and create a new year filled with praise.

### 39. 동방박사의 경배(마2:1-11) 2005. 12.25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신의 지혜로 이루셨고 그 아기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 시키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즉 목자들, 마리아와 요셉,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동 방박사들의 낮은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 중 동방박사의 성탄 체험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들은 계시를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 들인 그들은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아기 나심을 안 것은 자신들의 착상이 아니라 민수기 24:17에 나온 야곱별에 관한 발람 예언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에 대한 계시 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왕을 만나 리라는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은혜를 체험하는 접촉점이고 변화점입니다. 수많은 별 중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가리키는 그의 별을 따라 행동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나가야합니다. 둘째, 그들은 시험을 통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물 건너 산 넘어 열심히 찾아왔으나 계시를 따르는 길은 평탄대로가 아니었고 도리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사에서 베 들레헴까지의 험한 여정에 그 별까지 잃어버려 방향을 모르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방해꾼들, 헤롯, 서기관,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계시를 따라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헤롯은 결국 길을 찾아주는 일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 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 혜입니다. 셋째, 그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계시를 따라가 다가 시험을 당한 그들은 마침내 별을 따라 목적지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별의 실체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적 그대로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헌신의 증거로서 황금(왕), 유향(대제사장), 몰약(선지  
자)을 드림으로 신앙고백을 했고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동방박사의  
신앙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계시를 받은 집 축점을 확인하고 계시로  
시험당할 때 견디면서 그에게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 체험인 것입니다.

### 39. Adoration of the Magi (Matthew 2:1-11) December 25, 2005

God brought about the birth of Christ through His own wisdom and limited the people who could meet the baby. He touched the lowly hearts of the marginalized: the shepherds, Mary and Joseph, Simeon and Anna, and the wise men. Among them, what was the Christmas experience of the Magi? First, they began by receiving a revelation. Astronomers, like Melchizedek, are prepared people who are used for God's work. Knowing that the baby was born by seeing his star was not their own idea, but was based on Balaam's prophecy about Jacob's star in Numbers 24:17. It means that we received a revelation about the birth of baby Jesus. He received assurance from God that if he followed the guidance of the star, he would meet the king, and he took action. Receiving the Word is the point of contact and change to experience grace. Just as we acted according to the star among the countless stars that points to the coming King of the Jews, we must receive the words of the Bible as our own and go out in obedience. Second, they experienced grace through testing. Although I searched diligently across the waters and over the mountains, the path to following the revelation was not smooth, and on the

contrary, tests awaited me. During the difficult journey from Persia to Bethlehem, they even lost the star and did not know the direction. But then they meet thugs: Herod, the scribes, and the high priest. Even if you follow revelation, tests will come. However, Herod ultimately does the work of finding the way. The Lord used them to accomplish His will. This is God's wisdom. Third, they became true worshipers. After following the revelation and being tested, they finally follow the star to their destination and meet baby Jesus. I met Jesus, the reality of the stars. They worshiped the child and offered gifts, just as they had intended. And they fell down on their faces and offered repentance, thanks, and praise. Also, as proof of his devotion, he confessed his faith by offering gold (for the king), frankincense (for the high priest), and myrrh (for the prophet) and became a true worshiper. The faith of the Magi must be restored. Confirming the point of contact through which revelation was received, enduring when tested by revelation, and humbly bowing down, worshiping, and offering oneself to Him is the true Christmas experience.

#### 40. 우리 가운데 나신 아기 (사9:6-7) 2006. 12.18

"우리 가운데 나실 한 아기"에 관한 이사야 예언은 700 년 후, 유대 베들레헴 한 구유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2:7에 "만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라고 말함으로 1)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일, 2) 하나님 아들이 강보에 싸여 구 유에 누인 겸손, 3) 구원의 중보자인 만아들(초태생)로 오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동정녀탄생 신앙을 가진 신자는 두 가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의 실제 해답을 얻으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아기가 오면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어 지는 기적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아기가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묘한 기적 자(wonderful)란 말이고, 모사란 보혜사(counselor)란 뜻입니다. 전능자이신 그 아기는 세가지 근본 문제에 해답을 주 셧습니다. (1) 죽음문제의 해답을 주십니다. 십자가 죽음이 죄를 완 전히 죽였기 때문입니다.(시22:) (2) 모든 고통을 치료하십니다. 믿는 자가 만난 모든 시험을 없어지게 하든자, 더 나은. 것으로 주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고전10:13) 그 아기께 나아가 아뢰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3) 풍성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인간은 고통해결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풍성이 있어야합니다. 바로 우리의 풍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그 아기는 예수(구원)"와, "임마누엘"(연합)로 불리 워졌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나갈 때 풍성한 삶(요10:10)을 맛보게 됩니다. 둘째, 하늘 평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아기는 "평강 의 왕", "의의 왕",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강이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육체적 평강, 정신적 평강, 관계적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 도가 다스릴 때 이 평화가 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의를 세 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베들레헴 구의 아기 에게 집중함으로서 의식에만 머무는 저 차원에서 그 아기가 다스리는 의와 평화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분 모두가 이 복된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 40. The baby born among us (Isaiah 9:6-7) 2006. 12.18

Isaiah's prophecy about "a child born among us" was fulfilled 700 years later with the birth of Jesus Christ from the body of Mary in a manger in Bethlehem, Judea. In Luke 2:7, Luke says,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and laid in a manger." This refers to 1) the virgin giving birth, 2) the humility of the Son of God being wrapped in swaddling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3) the salvation. It is emphasized that God did this by coming as the firstborn Son (the firstborn), the mediator. Believers who believe in the virgin birth can experience two things. First, you can look forward to getting real answers to all your problems. Verses 1-6 say that when this baby comes, a miraculous change will occur, turning darkness into light. One reason this is so is because the baby came. "Wonderful" means "wonderful," and "counselor" means counselor. The baby, the Almighty, gave answers to three fundamental questions. (1) He gives the answer to the problem of death. This is because the death on the cross completely killed sin. (Psalm 22:) (2) He heals all pain. It is better for the believer to take away all the temptations he has encountered. You can either give something (1 Corinthians 10:13), and if you go and tell the baby, he will definitely get something better. (3) He solves the problem of abundance. Humans are not

satisfied with resolving pain. He must have abundance. To solve our problem of abundance, the baby was called “Jesus (salvation)” and “Immanuel” (unity). When you believe in that name and go forth, you will experience abundant life (John 10:10). Second , the baby is said to be the “King of Peace,” the “King of Righteousness,” and the eternal peace of God’s kingdom is promised to believers. This peace comes when Christ reigns, because only Christ established righteousness, and the righteousness that that baby reigns in is when your heart focuses on the baby in Bethlehem. I hope you all can go to this blessed place.



#### 41. 눈물의 기도 (시56:1-13) 2006. 8. 30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포로가 되었던 절박한 때에 하나님 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참 기도의 세계를 또다시 봅니다. 마커의 포로가 된 지경에서 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어두움 은 빛이 되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만 상대하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사람 들이 그를 삼키려고 종일 모해하고 케계를 꾀하며 압제함으 로 다윗은 두려움으로 떨며 사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1-2) 이 때 그는 주만 의지하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합 니다. (3-4) 오직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만을 상대로 한 기 도인 것입니다. (13)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은 오 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만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나간 두 소경처럼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 로부터 위대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권자를 믿어드 리는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말씀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찬양 했다는 독특한 말이 두 번 나온 것은 (4,10) 하나님과 2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말씀 따라 2대로 믿 는 신앙이 기도를 효력있게 , 쉽게. 그리고 정미롭게 만듭니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바로 나의 것으로 믿고 기 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셋째.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외롭고 절박해서도 울었겠 지만 그의 기도가 그만큼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 리한 때에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해주신다 고 확신한 것입니다. 2래서 그가 흘린 무수한 눈물을 하나 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여기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 달 라고 기도함으로 다윗은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정 말 2는 난관에 처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 위기 를 당할 때 진실한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 41. Prayer of tears (Psalm 56:1-13) 2006. 8. 30.

We see the world of true prayer again through this incident in which David relied on God and prayed in a desperate time when he was taken prisoner by the Philistines and received an answer. If you can pray like this even when you are a prisoner of the marker, crisis will become opportunity and darkness will become light and praise you. There were three elements to his prayer. first. There was a desperate need to deal only with God. David was on his deathbed, trembling with fear, as people plotted, schemed, and oppressed him all day long to devour him. (1-2) At this time, he relies only on the Lord and prays three times repeatedly. (3-4) His prayer is directed only to God, the light of life. (13) Praying in the Holy Spirit continuously is accomplished only at the moment of acknowledging God's sovereignty. Like the two blind men who came to the Lord relying on Him, great prayer begins from acknowledging His sovereignty. Prayers that believe in the Sovereign will surely bring about the work of faith. second. I had a heart to praise the Word. The fact that the unique word praising the Word appears twice (4,10) means that the promise of number 2 with God was held tightly. Faith in two words according to the Word makes prayer effective and easy. And it is made

beautifully. When I pray and believe that all the promises in the Bible are mine, I receive answers. third. It was a prayer of tears. He may have cried because he was lonely and desperate, but his prayers were that sincere. I was convinced that no matter how adverse the times were, God would listen to my tearful prayers and save me. 2 This is why he even asks God to put the countless tears he shed into a bottle. This is because the tearful prayers shed before God have the power to move mountains. By remembering the grace he had already received and praying for the power of salvation to be shown here, David received an amazing answer. Indeed, when faced with difficulties, 2 gained courage through the prayer of faith and was finally blessed to become the king of a unified kingdom. Let us become believers who enjoy God's victory as our own by offering sincere prayers when faced with a spiritual crisis.

#### 42. 태초에(창1:1) 2006. 9.6.

4차원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과 이웃과 세 상. 그리고 역사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1차원이 선이라 면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공간을 가진 입방체로서 모두 4차원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을 모르는 사람은 3차원에 사는 짐승의 자리를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정신을 추구해도 영적 우맹의 자리 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계가 창조 전에 존재 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두 구절이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이는 물질세계분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이며 영적 존재로 지었고 천사들은 순수한 영적 존재로 지어졌습 니다. 성경은 가브리엘, 미가엘이란 천사에 관해 언급하기도 했고 천사를 스룹과 그룹이라 불렀습니다. 그 수는 천천이 요 만만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역자로서 일했으나 하나님이 받을 경배를 결코 받지 않았습니 다. 특 이한 천사. 여호와와 사자(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는 경배 를 받았기에 일반 천사와 구분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리스도인을 섬기라고 보냄 받은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이 영 적세계를 의식하고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해 예배해야합니다. 둘째. 창1:31절에는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 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물질계나 영계나 모두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입니다. 또 보이는 피조 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 만물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 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한 무 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안에서 회복되어 하나 님형상을 가진 존재로서의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령 이 오셔서 거듭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3차원에 살지만 4 차원의 지배를 받아 영생가진 존재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4차원의 지배를 받는 정상적인 사람이 됩시다.

42. In the beginning (Genesis 1:1) 2006. 9.6.

People who do not understand the 4-dimensional world are at risk of themselves, their neighbors, and the world. And we don't know the history at all. If the first dimension is a line, the second dimension is a plane, and the third dimension is a cube with space, all of which are governed by the fourth dimension. Therefore, people who do not know God cannot escape the position of beasts living in the third dimension. No matter how noble you pursue your spirit, you are bound to end up in a position of spiritual blindness. The Bible says that this world existed before creation. Two verses in Genesis chapter 1 suggest this. first. Genesis 1:1 says tha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is includes not the visible material world but the invisible spirit world. So, humans were created as material and spiritual beings, and angels were created as purely spiritual beings. The Bible also mentions angels named Gabriel and Michael, and angels are called Zerub and Cherub. They numbered thousands and thousands, and although they worked as ministers carrying out God's mission, they never received the worship that God deserves. Unusual angel. Jehovah's messenger (Christ before the incarnation) is distinguished from ordinary angels because he is worshiped. And angels are ministers sent to serve Christians. We must be conscious of this spiritual

world and worship toward the One on the throne. second. Genesis 1:31 says that God created all things good in his sight. Both the material world and the spiritual world were created to be good and beautiful in the eyes of God and man. Also, in order to rule over the visible creation, God created humans in His image to manage all things. As spiritual beings, people are called to perform stewardship with the power of God. However, because he committed sin, he lost his ability to rule and became powerless. This was restored in Christ, and we were restored as beings with the image of God. Christians who have been reborn and saved by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live in the 3rd dimension, but are governed by the 4th dimension, allowing them to live as beings with eternal life. Let us become normal people governed by the fourth dimension.

#### 43. 사탄, 악마(겔28:12-17) 2006. 9. 13.

성경은 악의 기원에 관해 침묵을 지킵니다. 단지 영의 세계에서 악이 시작되었음을 시할 뿐입니다. 선하게 창조 된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저주받아 하늘에 서 쫓겨나 마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장이었으나 타락하여 마귀가 된 사실을 유다서1:6은 말해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 보좌 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땅 아래 찍힌 사실을 언급했고 선 지자 에스겔은 두로가 번성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 을 받아 망한 것을 천사의 타락을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룹" 이나 "동산" 그리고 저주로 패망하는 모습이 마귀의 타락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만이 천사를 타락시킨 것처럼 하나님 형상인 사람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타락하여 사망과 저주 가운데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마커는 세상에 내려올 때 많은 즐거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것을 악, 영, 혹은 악마라고 부릅니다. (계12:9) " 옛 뱀". "붉은 용".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로 일컫는 사탄 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어 놓고 경배를 자기가 받 기위해 온갖 공작을 꾀니다. 하와를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거짓을 믿게 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려 자기에게로 오도록 유혹한 사탄은 주님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유혹하였지만 주 님은 능히 이겼습니다. 그렇게 전통과 율법을 중시한 이스 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것은 마귀의 위장전술에 넘 어가 말씀보다 사람의 유전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거짓말장이 의 자손, 살인자의 후손 곧 마커의 자손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 경건과 문화 속에 숨어있는 마커의 역사 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위해 온갖 계계를 펼치기 때문에 교회는 그 실상을 알고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3. Satan, the devil (Ezekiel 28:12-17) 2006. 9. 13.

The Bible is silent about the origins of evil. It simply suggests that evil began in the spirit world. It is said that angels, who were created good, were cursed with the pride of trying to be like God and were cast out of heaven and became devils. Jude 1:6 tells us that he was an archangel who did not keep his position, but fell and became a devil. The prophet Isaiah referred to the fall of Babylon as the fact that it was cut down under the earth while trying to be higher than the throne of God, and the prophet Ezekiel explained the destruction of Tire by being judged by God because of its prosperity, comparing it to the fall of an angel. This is because the images of “cherubim” and “garden” and their destruction through curses imply the fall of the devil. What is clear is that just as pride corrupted angels, people who are in the image of God also fell due to their pride in trying to become like God, resulting in death and curse. The fact is that when the fallen marker came down to the world, it brought with it many evil spirits, or devils (Revelation 12:9), “the old serpent” and “the ruler of the power of the air.” Satan, who is referred to as God, always breaks the union with God and tries all kinds of tricks to receive worship for himself. He tempted Eve to make her own decision and come to him by making her believe lies through doubt about the Word, even to the Lord. Although they were tempted in the same way, the Lord was able to overcome them. The reason Israel, who placed so much emphasis on tradition and law, opposed the Son of God was because they fell



for the devil's camouflage tactics and followed human traditions rather than the Word. This is because the devil has seen the history of the Marker hidden in history, tradition, piety, and culture, and that they are not the descendants of Abraham, but the descendants of the liar and the descendants of the Marker. Since people are using all kinds of tricks to steal the glory that will come to them, the church must know the reality and live a life of absolute obedience to the will of Christ.

#### 44. 복음 (히1:4-8) 2006.9.20

선한 영의 세계에서 나온 악은 선한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 구렁텅이에서 나와 완전한 선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복음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복음하면 넓게는 성경을 가리키며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막1:1) 그만이 우리를 악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어떻게 그가 구주가 되십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창1:26, 골 1:15)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은 하나님 계명에 불순 종함으로 어두워져 의 대신 불의, 선 대신 악, 진실 대신 거짓을 나타내었지만 그리스도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참 형상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형상을 바라봅니다. 둘째. 그는 대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 신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고후5:21) 그만이 형상의 일그러짐의 원인인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으로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단번에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 구원을 완성하시며 그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그는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15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는 말씀에서 적게리면 사탄을 정복하시고 모든 악을 제하셨다는 선언은 자기 백성의 승리의 유일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인의 후손(창3:15)이 바로 예수님이며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십자가의 효능 앞에는  
무력하게 되어 집니다. 사탄을 우리의 발아래 상하 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뿐입니다. 이 놀라운

#### 44. Gospel (Hebrews 1:4-8) 2006.9.20

The evil that came out of the good spirit world turned the good world into a  
pit of evil. In order to come out of this pit and achieve complete restoration of  
goodness, God immediately gave us access to the gospel. The gospel broadly  
refers to the Bible and narrowly refers to Jesus Christ. Mark proclaims that  
Jesus Christ is the gospel. (Mark 1:1) He is the only Savior who can save us  
from evil. How does He become the Savior? first. Because he is the image of  
God. (Genesis 1:26, Colossians 1:15) Adam, who wa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was darkened by disobeying God's commandments and showed  
unrighteousness instead of righteousness, evil instead of good, and lies instead  
of truth, but Christ revealed the true image of God through testing. revealed.  
Also, as Christians connected to Christ, we see his beautiful image. second.  
Because he is the redeemer. "He made sin for us, even though he knew no sin"  
(2 Corinthians 5:21), because he is the only one qualified to take on sin, the  
cause of the distortion of the image. This is because he is true God and is also  
a true man without sin. He completed salvation by offering an eternal sacrifice  
through his once for all death and resurrection, allowing those who believe in  
him to fully demonstrate the character of God. third. Because He was  
victorious through the cross. In Colossians 2:15, "He put off principalities and  
powers, made a public display of them, and was victorious through the cross."  
In short, the declaration that He conquered Satan and eliminated all evil

became the only basis for His people's victory. Jesus is the descendant of the woman who bruised the serpent's head (Genesis 3:15), and He solved death through His own death. Therefore, any suffering becomes powerless before the efficacy of the cross. The only people who can enjoy the power of this gospel are those who are united with Christ.

#### 45. 죽음 (요일3:8) 2006. 9.27

물질계와 영계의 양면 세계를 접한 그리스도인은 하 나님과 의 연합을 끊어 놓으려는 사탄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 어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죽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견해를 알 때 우리는 안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된 무 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요 사망의 법 으로 다스리는 사탄을 멸하심으로 두려움의 대상을 구원완 성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적 죽음을 가리켜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역시 일찍 죽은 성도들을 잠자는 자라고 하면서 주님 재림 때에 다시 살아 돌아오리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성화의 최종 지점내지 영화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데 마귀는 이 죽음을 가지고 두 형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째. 죽음의 두려움으로 혼란에 떨어뜨립니다. 죽은 자 가 유령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주술자들을 이용 하여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내게 하거나 죽은 자에게 예배하 도록 만듭니다. 다윗의 말대로 한번 죽은 자는 다시 돌아 올수 없고 심판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삼하12:23) 이런 마 커의 속임수를 철저히 경계해야합니다. 둘째. 호기심으로 혼란에 빠뜨립니다. 죽은 자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깁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가장한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공격하는 마 커를 주의하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나가야합니 다. 초혼자들의 호기심에 빠져 하나님께 돌릴 경배를 가로 채는 자와 그 말에 굴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 십니다. 성도는 죽음을 성화의 단계로 보기 때문에 담대함 으로 대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 교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주를 쳐다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있음을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성실 하게 감당하다가 주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 45. Death (1 John 3:8) 2006. 9.27

Christians who encounter both worlds, the material world and the spiritual world, are always exposed to Satan's attacks that seek to break their union with God. In particular, Satan attacks us with the issue of death. When we know the right view of death, we can live a safe life. Death is Satan's main weapon to rule the world. By destroying Satan, who holds the power of death and rules by the law of death, Christ turned the object of fear into a tool for completing salvation. So, the Lord referred to physical death as sleeping, and Paul also referred to saints who died early as sleepers and expressed that they would come back alive at the Lord's second coming. So we treat death as the final point of sanctification or the gateway to glorification. However, the devil tempts us with this death in two forms. first. It throws you into confusion with the fear of death. Pretend that the dead appear as ghosts. They use sorcerers to make the dead speak their voices or worship the dead. As David said, once someone dies, he cannot come back and only goes to judgment. (2 Samuel 12:23) We must be completely wary of the deception of these markers. second. Curiosity confuses me. Lead as if you can talk to the dead. This is just a trick of the devil pretending to be the dead. We must be careful of markers that attack us by disguising themselves as angels of light, and proceed with thorough obedience to God. God is not pleased with those who steal the worship that is due to God by being caught up in the curiosity of newlyweds

and those who give in to their words. Saints face death with boldness because they see it as a stage of sanctification. I look to the Lord, knowing that my present suffering cannot compare to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the future. We must be thankful that we are alive now and faithfully carry out the work that God has asked us to do before welcoming the Lord. Because this is the path to true happiness

#### 46. 역경 (요17:15) 2006. 10. 4

영적생활에 당면한 둘째 문제는 역경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불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락된 고난, 환난, 곤고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몰랐려올 때 어떻게 다를까?

불신세계에서는 미신으로 탈피하려고 애 쓰지만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하는 역경이 모두 하나님의 손아래 되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28절 한 마디가 잘 요약해 줍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구원" 혹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39) 이것을 향해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수 없어 당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도리어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귀하게 쓰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생각해 봅시다. 한 예는 요셉의 경우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어도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함으로 당한 현실에 성신했다 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성신했습니다. 그렇다고 고행주의 자는 아니었습니다.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자리에서도 악보다 선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연단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언약성취의 모래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예는 욥의 경우입니다. 모진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를 복된 자리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걸음을 따라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이 순종이 그를 정금되게 한 것입니다. 갑절의 복 중에 그



자신이 하나님 영광의 형상을 가진 자로 변화된 것이 진정한 복이  
었습니다. 사울왕의 경우, 당한 문제를 불순종으로 풀려하다 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큰 죄를 범하고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즉시 회개하여 소망을 얻었습니다. 당면한 역경을 믿음으로 잘 받아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46. Adversity (John 17:15) 2006. 10. 4

The second problem we face in spiritual life is adversity. Non-believers say this is bad luck, but we express it as suffering, tribulation, and suffering allowed in God's providence. How is this different when you don't know it? In the world of disbelief, people try to escape from superstition, but they get no help and are only deceived by the devil. Christians believe that all adversity they face falls under the hand of God. Romans 8:28 sums it up well.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he good referred to here is "salvation" or "like Christ." (39) God leads us toward this. In other words, it is not something that happened out of luck, but rather,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a purpose for me to receive God's grace and use it precious. Let's consider two examples. Even though he was sold by his brothers and became a slave, he was faithful to the reality he faced rather than complaining and complaining. He wanted the freedom to go out and take revenge, but people tried to harm him, but God turned this evil into good and used it as an opportunity for refinement. Another example is Job, whose faith brought him to a blessed place despite difficult trials. He walked according to God's guidance and loved God's word more than regular food. Among the double blessings that came to him, the true blessing was that he himself was transformed into a person who bears the image of God's glory. In the case of King Saul, he tried to solve his problem

through disobedience and was ultimately abandoned by God, but when David committed a serious sin and was rebuked by Nathan, he immediately repented and received hope from God. I hope that you will become a saint who reaches your goal.

47. 미래(사43:13-17) 2006. 10. 8.

혼란한 영적생활은 미래에 관한 그릇된 견해에서 많이 생깁니다. 전도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케 하신 이유가 사람으로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정래 일을 모두 안다면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은 장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신과 경건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언 제나 앞세워야 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무엇을 한다고 말해 야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 들어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들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에 끌려 탐욕을 발동 시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벌써 점성술사나 심령술사들을 통해 미래에 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탐욕을 채우는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아버지만 아 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심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마음을 쏟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장래의 모름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 정래 일을 모름으로 겸손히 살아야합니다. 탐 욕을 경계하고 현재를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으로 죽을 날을 선고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 할때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둘째, 반드시 선을 이루는 정래를 믿어야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종말을 바라보고 현재의 난관을 감사함으로 살아야합니다. 요셉의 섭리적 고난은 그를 가장 복되게 하는 연단의 기회였습니다. 셋째.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청지 기는 결산할 날을 바라보고 현실의 직분에 충성합니다. 호 기심의 만족을 얻기 위해 도박하는 행위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미래지향적이되 장래를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실한 영적생활입니다.

47. Future (Isaiah 43:13-17) 2006. 10. 8.

A lot of confused spiritual life arises from wrong views about the future. The evangelist said that the reason God made the days of prosperity and the days of hardship go side by side was so that people could not fathom what would happen in the future. If you knew everything that was going to happen, you would live in fear. On the contrary, by not telling us specifically about the future, the Lord allowed us to live with sobriety and godliness that fear God. This is one of the ways God deals with people. Because we do not know the will, we must always put "the will of the Lord" first. You must tell the Lord what you will do if it is your will. This attitude makes us humble and serious, allowing us to know the value of grace. Nevertheless, people are driven by curiosity about the future, which triggers greed. Even in Isaiah's time, it was already common for astrologers and spiritualists to satisfy greed by stimulating curiosity about the future. This has appeared in many forms throughout the East and West. However, the Bible makes us focus on God's sovereignty by saying that only the Father knows the day and time of Christ's second coming and that no one else knows it. So what attitude should a Christian have when facing the unknown future? first. He must live humbly by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He must guard against greed and live humbly in the present. Hezekiah was sentenced to death due to illness, but when he humbly prayed before God, his life was extended by 15 years.

Second, he must believe in a coming future that will bring about good. He must look to the end with a happy ending and live with gratitude for his present difficulties. Joseph's providential suffering was an opportunity for refinement that made him the most blessed. third. He must prepare wisely for the future. A wise manager looks forward to the day of settlement and is loyal to his actual duties. Gambling to satisfy curiosity causes one to focus on vanity. Be future-oriented, but do not become a slave to greed to know the future in detail. This is a sincere spiritual life.

48. 질병(출15:26) 2006. 10. 18.

영적생활의 균형(balance)은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합니다. 죽음, 저주, 미래에 관한 주제에 이어 질병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처럼 자연적 질병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이러스나 전염병의 침투가 언제나 가능하여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질병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의치유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항상 그 분에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기도 하시며 약과 의사를 통해 고치기도 하십니다. 전자의 경우, 교회의 권위를 통해 치료하신다고 합니다.(약5:14-15)

그래서 병자 치유를 위해 장로 들을 초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위해 기도하며, 서로 죄를 고하는 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할 바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처럼 점 손히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 38:5)

중요한 것은 질병에 걸릴 때 하나님보다 의사나 약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이 우리를 혼란에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발병에 걸려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 의지했을 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가 무당이나 마법으로 사탄의 힘으로 치료된다면(완전치유가 없지만) 그의 영혼 구원에 는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자기를 경배하려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여 그 의의를 따라갈 때 모든 질병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연적, 영적 질고에서 완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53:5) 이 치료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48. Disease (Exodus 15:26) 2006. 10. 18.

Balance in spiritual life is necessary in all areas. Following the topics of death, curses, and the future, it was time for disease. Christians living in this world can fall into natural diseases like Israel who encountered the bitter waters of Mara. It is always possible for humans to become infected with viruses or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to this, God said that in order to achieve his salvation, he allows illness. We must always go to God, knowing that God is the healer of all diseases. Sometimes God heals us directly, and sometimes He heals us through medicine and doctors. In the former case, it is said that healing is done through the authority of the church (James 5:14-15). So, in order to heal the sick, the elders were invited, anointed with oil, prayed for, and asked to confess their sins to each other. At that time, God heals. If God does it, there is nothing he cannot do. When we cry out with tears like Hezekiah, God performs miracles. (Isaiah 38:5)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hen we get sick, our unbelief, relying more on doctors and medicine than on God, throws us into confusion. King Asa was not cured when he got sick and relied on doctors more than God. If a person is healed by Satan's power through a shaman or magic (although there is no complete cure), his soul's salvation will be seriously damaged. Satan's goal is to break the relationship with God and worship himself. In order to enjoy the grace of healing, if we obey His Word and follow His righteousness, we can be protected from all diseases and receive complete healing from natural and spiritual suffering.

Because we have been healed (Isaiah 53:5), let us trust in this God of healing until the end.



## 사탄과의 계약(마4:8-9) 2006. 10. 25.

사탄과의 계약이란 말이 생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세계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택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기회를 제공할 때 사탄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혼란에 떨어 뜨립니다. 사탄과의 계약체결을 확정할 때 영적생활은 큰 손상을 당하기에 우리는 주님과 사도들의 본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첫째, 주님처럼 마커의 제의를 거절하고 말씀의 빛 아래 든든히 서는 일입니다.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내게 주겠다는 제의를 주님은 두 가지로 맞셨습니다. 하나는 사탄을 향해 물러가라는 명령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의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육체의 부패성이 사탄과 결합하여 우리 의지를 꺾으려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할 때 마귀는 즉시 떠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도살할 양 같은 처지에서 당하는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긴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 나, 현재일과 장래일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원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혹도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사건을 분별해야 합니다. 선행, 구제, 봉사로 가장한 사탄의 위장전술이나 육체의 고상한 것을 통해 손짓 하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 먼저 말씀의 표준을 잘 알아야 하고 영육의 일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합니다. 둘째. 우리를 수동적이게 하는 교훈이나 약속들과 환상, 꿈, 예언, 치유 등을 통해 나타나는 유혹을 경계해야합니다. 주님이 모든 일의 주님되심(Lordship)을 인정하여 말씀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가차없이 버려야합니다. 셋째. 그리스도 말씀의 근거를 따라 그 빛 아래 살며 그 의 공로를 주장할 때 사탄은 떠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와같이 하여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Covenant with Satan (Matthew 4:8-9) 2006. 10. 25.

The term “contract with Satan” may seem unfamiliar, but it is a topic that Christians living in the spiritual world should pay attention to. Satan has strange ways of confusing us when he offers an opportunity on our part, even though he does not allow us to touch the elect. When we confirm a contract with Satan, our spiritual life suffers great damage, so we must gain wisdom through the example of the Lord and the apostles. First, like the Lord, we must reject the marker's offer and stand firmly under the light of the Word. The Lord responded to the offer to show the glory of all nations and give it to you if you bow down to me in two ways. One was a command to retreat from Satan, and the other was an argument to serve only the Lord your God, quoting the words of Deuteronomy. When the corruption of the flesh colludes with Satan and tries to break our will, we can command in the name of Jesus. This is because when you passionately claim the Word of God, the devil is meant to leave immediately. Second, Apostle Paul was confident that he could easily overcome all the temptations he faced while being like a sheep to be slaughtered. He sai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present nor future nor

powers,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gels nor powers, nor any other created 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e reason we fall for Satan's coaxing is because we did not know God's love. Therefore, we must be confident that we can overcome any temptation. The way we overcome Satan is as follows. First, we must discern every incident. In order to discern Satan's camouflage tactics disguised as good deeds, charity, and service, or Satan's temptations beckoning through the noble things of the flesh, you must first know the standards of the Word well and be able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spiritual and physical matters. second. We must be wary of temptations that appear through lessons, promises, visions, dreams, prophecies, healings, etc. that make us passive. We must acknowledge that the Lord is the Lord of all things and ruthlessly throw away anything that goes against the Word even in the slightest. third. When we live under the light of Christ's words and claim his merits, Satan is supposed to leave. By doing this, let us become believers who overcome Satan's temptations.

새벽을 깨우자(시57:1-11) 2006. 1. 11.

영적 세계의 탐구에 이어 시편의 세계로 돌아 왔습 니다. 시편은 영적 오지의 탐험과 같습니다. 원수의 교묘한 울무 앞에서 굴에 갇혀 고생하던 다윗은 원망과 불평으로 1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피해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주시기를 구하여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적 체험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 세 가지 본 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자리에서 그는 공홀이 많으신 피난처이신 지존자 하나님, 일 을 성취하기 위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1-5)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 고 그의 뜻을 알 때 마음이 밝아집니다. 오직 주님을 주목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둘째, 교묘한 원수의 꾀계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6) 신앙의 원수는 언제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 동류를 통 해 사탄은 공작을 펴니다. 원수가 그물을 퍼서 목을 노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 은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확정하여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방법이였습 니다. (7-9) 셋째, 만민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 받은 다 윷은 만민과 열방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굴 속에서 답답한 가운데 일어났던 은혜의 사건은 놀라왔습 니다. 그는 3가지 작성을 맞았습니다. 첫째는 자기 영혼의 각 성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는 영혼의 작성을 가리킵 니다. 둘째는 문화적 개혁입니다. 비파와 수금을 깨우는 것 은 모든 문화의 최고수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시간의 작성입니다.

기회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골방기도에서 받은 은혜는 온 세계에 영향을 끼쳐 하나님나라를 이룬 것이지요.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11) 이것이 하늘나라 속에 사는 자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Let's wake up at dawn (Psalm 57:1-11) January 11, 2006.

Following our exploration of the spiritual world, we returned to the world of Psalms. The Psalms are like an exploration of a spiritual wilderness. David, who suffered while trapped in a cave in front of the enemy's clever snares, did not spend January in resentment and complaints, but instead prayed to God to send mercy and truth to his victims, and is spreading the grace he received to the whole world. When we apply this practical experience to our lives, we can learn three examples. first. I looked to God in the day of trouble. In a desperate place, he focused on the Most High God, a compassionate refuge, and the God of salvation who sends lovingkindness and truth to accomplish the work. (1-5) When we experience God's love and know His will when we suffer, our hearts become bright. This is the grace that the Holy Spirit gives us only when we pay attention to the Lord. second. I was able to discern the clever tricks of the enemy. (6) The enemies of faith are never far away. Through his associates, Satan carries out his operations. Even when the enemy spreads his net and targets his neck, God does not let go of his hand. So David set his heart toward God rather than fighting with people and sought the Lord's grace. This was the way to victory. (7-9) Third, he preached the gospel of grace to all people. David, who received grace, shouts out to all people and nations to praise God. The incident of grace that occurred in the

suffocation of the cave was surprising. He got three written correct. The first is the awakening of his own soul. “Awake, my glory” refers to the writing of the soul. Second is cultural reform. The sound of the harp and harp indicates that it is the best means of all culture and should give glory only to God. Third is the creation of time. There was a recognition of opportunity. It requires that all time be focused on the glory of God. The grace received through prayer in the closet influenced the whole world and established the kingdom of God. It is my hope that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revealed and exalted throughout the world. (11) This is the worldview of those who live in heaven.

##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시58:1-11) 2006.11.11

계속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 속에서 도 의의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의인을 변호하 시는 심판을  
확신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악이 득세함으로 공 의와 정직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다윗은 악인을 꺾고 의인을 세우시는 의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의가 무시될 때 하 박국 선지자의 고민을 가진 성도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를 배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구체 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6-8절에 그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는 하나님,  
급류를 스롭시키시고 시위된 화살을 꺾으시는 하나님, 달팽이를  
소멸시키시고, 초 산한 유아가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시나무 불 을 회리바람으로 끄시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한 것  
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거짓과 장포와 고집이 거세도 지혜 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치의 실 수 없이 급작스럽고  
절대적인 심판을 단행하시기 때문입니 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힘썼습니다. 커 머거리 독사와 같이 거짓과 강포로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은 그 뿌리가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해 보자는  
무신사상에서 나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 할 수 있음을 알고 그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인정받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의가 드러날 때 심판이 이 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의인에게 임하는 복을 확신했습니다.(10-11) 이  
결과는 성도의 기도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나가 사 명을 버리고

떠나는 악의 길을 걸었어도 사람들의 질책과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된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회개할 때 반드시 갚으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의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마6:33)

#### God's Righteous Judgment (Psalm 58:1-11) 2006.11.11

This is a continuing psalm of David. David prayed that the God of righteousness would judge him in the midst of any hardship, and he was confident and praised the judgment that would defend the righteous. In a world where justice and honesty are shaken by the rise of evil, David sang about the God of righteousness who defeats the wicked and establishes the righteous. When righteousness is ignored, believers who have the troubles of Prophet Habakkuk can win by learning the truth that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How was David able to win specifically? First, because he knew the wisdom of God. In verses 6-8, he speaks of the God who breaks the molars of a young lion, the God who destroys a torrent of water and breaks a bowed arrow, the God who consumes a snail, and the God who whirls fire from a thorn bush that prevents a premature infant from seeing the light. This is because no matter how strong the lies, pretense, and stubbornness of the enemy may be, God of wisdom executes sudden and absolute judgment without making a single mistake. Second, he worked hard to reveal God's righteousness. Like the poisonous snake, evil that does not know how to repent is rooted in the idea of doing something without God. I prayed to God, and I was satisfied and rejoiced in His love because I was confident that judgment would come when righteousness was revealed. Third, he was



confident of the blessings that come to the righteous. (10-11) This result was revealed as an answer to the saints' prayers. Even though Jonah abandoned his mission and walked the path of evil, he repented through people's criticism and a desire to take responsibility. Just as restoration has begun, anyone who repent according to God's righteousness will surely be rewarded. Because God's wisdom and ways are different from our thoughts, let us become saints who approach the God of righteousness and seek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Matthew 6:33)

과학이 발달하고 온갖 문화시설이 애용되어 많은 도움을 받지만 한 알의 밀이 죽을 때 많은 열 매를 맺는 신앙의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 시편의 다윗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정로를 걸음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 집에 갇혔을 때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구원의 기도입니다.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돕기 위해 깨어 감찰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마치 풍랑 이는 배에서 주무시던 주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진실한 간구는 거짓되고 교만한 원수의 까닭 없는 공격 때문에 생긴 열매였습니다. 원수가 사악을 행하고 돌아다니는 개처럼 피 흘리는 일에 혈안이 된 상황에서 그는 더욱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훈으로 참 진리를 질식시키는 오늘날의 위험은 교회로 참된 간구를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원수의 멸망을 구하는데 익숙한 다윗이 여기서 원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1) 마치 사사시대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했다가 원수의 압제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그대로 두어 싸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순수한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피난처요 산성임을 찬양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아침마다 찬송한 것입니다. 현실의 안타까운 고난은 우리를 복되게 하면하지 우리를 절

코 넘어 쓰릴 수 없습니다. 그 고난으로 우리는 주님께게만 달라붙는 자리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감사절기에 이 신앙을 회복합시다.

Grace in difficult days (Psalm 59:1-17) 2006.11.15

Although science has developed and all kinds of cultural facilities have been used and helped greatly, the path of faith that bears much fruit when a single grain of wheat dies remains the same. David in this psalm also bore amazing fruit by coming to God and walking the righteous path of carrying the cross when he was going through difficult hardships. This psalm is a prayer of salvation that David offered to God to rescue him from his enemies when he was trapped in his house due to Saul's pursuit. He lifted me up high and asked me to watch and watch to help me. They cried out like the disciples who woke up the Lord who was sleeping in a stormy boat. This sincere petition was the fruit of the groundless attack of a false and arrogant enemy. In a situation where the enemy was doing evil and was obsessed with shedding blood like a roaming dog, he began to offer more sincere prayers. The present-day danger of suffocating true truth with false teaching forces the church to learn true petition. However, David, who was accustomed to seeking the destruction of his enemies, asked not to kill his enemies here. The reason was because the Lord's people were afraid of forgetting God's grace. (11) Just as the peace of the period of the judges made people forget about God's grace and the oppression of enemies led them to confess that only God was their savior, and leaving the seven tribes of Canaan to fight was an act of preserving God's inheritance and relying only on God. It's as if there was a purpose to make it happen. For this pure faith, God worked through suffering. David praised God every morning for being his refuge and fortress and for his indescribable love.

The unfortunate hardships of reality cannot trip us up if they make us blessed. This is because through that suffering, we move into a position where we cling only to the Lord. Let us restore this faith during the Thanksgiving season.

표제어대로 본문은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던 다윗이 에돔이 망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삼하8:13-14) 다윗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하여 승리의 확신으로 마칩니다. 2-3절이 암시하는 일시적으로 패배한 다윗이 유다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오른손으로 구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5)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비척거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소에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뛰놀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세겜, 숙곳, 골짜기, 길르앗, 모압, 불레셋, 므낫새, 에브라임, 그리고 에돔에서 다윗이 혁혁한 승리를 거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승패의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있는 것을 깊이 깨닫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본 시편에서 두 가지를 크게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모든 일에 절대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4) 그는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십니다. 승리의 방법은 임마누엘에 달려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군대장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만 했는데 이겼습니다. 어리석은 전법처럼 보였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그때 군대장관의 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약속대로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다는 여리고성, 즉, 사탄의 세력, 세속적 문화, 죄악 세력,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순종 일관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해야 합니다. (11 -12)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동참을 원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승리는 전략보다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영전의 용사로 살 아갑시다.

Salvation of the right hand (Psalm 60:1-12) 2006. 11.22

As the title suggests, the text is a poem in which David, during a war with Aram, hears the news of Edom's destruction and gives thanks and praise to God. (2 Samuel 8:13-14) David begins with a prayer requesting salvation and ends with assurance of his victory. Verses 2-3 imply that David, temporarily defeated, asks Judah to be saved by God's right hand, which signifies God's power. (5) Although he gave difficulties and stumbles to the Lord's people, he was confident that God would surely restore them to those who fear Him and love Him. This prayer was answered in the sanctuary. It means that God Himself fights and gives victory. The word "I will play" here means that God will personally fight. Shechem. The Valley of Succoth, Gilead, Moab, Philistia, and Manasseh. David's remarkable victories in Ephraim and Edom were all thanks to God's help. Through this, David deeply realizes and praises that the standard for his victory or defeat lies in God's presence. We too can learn two great things from this psalm. first. God has promised his people absolute victory in all things. (4) He has victory over everything and gives us

victory. Jehovah is the God of Nissi. The way to victory depends on Emmanuel. When they occupied Jericho, they simply followed the military commander's orders and won. Even though it may seem like a foolish tactic, you will win if you obey the Word. At that time, the activities of the military commander were not visible, but the castle collapsed as promised. We must overcome the city of Jericho before us, that is, the forces of Satan, worldly culture, the forces of sin, and the lusts of the flesh. We can all win when we obey, consistently, and walk out in faith. second. We must rely on God and act courageously. (11 -12) God is doing everything from beginning to end, so what is the reason why He wants us to participate? It is to help us escape from the position of children and participate in the grace and glory of God. Therefore, we must do our best, relying on God's power. Above all, what we must remember is that our victory lies in maintaining our own holiness rather than in strategy. Let us live as warriors of this Holy Spirit.

## 마음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시61:1-8) 2006. 11. 29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며 가장 큰 행복은 마음의 행복입니다. "영혼" 또는 "영" 으로 일컫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교류가 원활할 때만 참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잠언4:23절에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생각하는 다윗 시편에 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다윗은 원수의 공격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을 당했습니다. 2절에 "마음이 놀릴 때 "를 NIV 에 " grows saint"(희미하고 혼미한 상태)로 표현했는데 외부의 고난으로 심적 갈등과 절망과 낙심 속에 떨어진 것을 시합니다. 이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를 높은 바위로 인 도하기를 구하며 피난처요 높은 망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 가 그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곤고한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부르짖어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둘째. 그가 만난 하나님은 피난처요 높은 망대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3) 안식이 필요할 때 그에게 피하여 거하며 회복을 위해 그 안에 일어서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낙심에 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안에 발판을 두고 앉고 일어서고 행함으로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 앉고 일어서서 행하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으로 환난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받고 장수의 복을 누리며 인자와 진리의 보호를 체험한 시인은 서원한대로 서 원을 갚는 삶을 산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땅 끝에서



방황하는 자리 일지라도 주를 향해 부르짖는 그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먹으나 마시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마음의 복인 성령 충만한 상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The One who delivers from heartache (Psalm 61:1-8) 2006. 11. 29

The greatest suffering a believer faces in this world is suffering of the heart, and the greatest happiness is happiness of the heart. The mind, referred to as “soul” or “spirit,” achieves true freedom only when it communicates smoothly with God. So, Proverbs 4:23 tells us to guard our hearts, which are the source of life, and the Psalm of David we are thinking about today clearly shows this issue. first. David's life was in danger due to attacks from enemies. In verse 2, “when the heart is oppressed,” the NIV expresses it as “grows faint” (a dim and dazed state), which refers to falling into mental conflict, despair, and discouragement due to external hardships. At this time, David prayed to God to lead him to a high rock and went before God, who was a refuge and a high tower, and asked for His help. Even in difficult times, he made a vow and cried out to God and received an amazing answer. second. The God he met was a refuge and a high tower. (3) His image of taking refuge in him when we need rest and standing up in him for recovery helps us know how to escape discouragement. We who are in Christ can enjoy true rest by sitting, standing, and walking with a foothold in Him. This is what it means to live as someone who wears the shoes of peace of the gospel. This can be experienced even in tribulation through the life of a person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o sits,

stands, and walks in Christ. Suffering leads to perseverance, perseverance leads to discipline, and discipline leads to hope. third. I received an answer to my prayer. The poet, who received an inheritance, enjoyed the blessings of longevity, and experienced the protection of kindness and truth, lived a life that paid off his vows. Even if he was wandering at the end of the earth with a frustrated heart, he who cried out to the Lord was able to go out to a place where he would forever praise God and live for the glory of the Lord, whether he ate or drank. I pray that you will become a saint who enjoys the state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 blessing of heart that is given only in Christ.

## 주를 사모하는 자(시63:1-11) 2006. 12.13

신앙생활에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가 안일(안주)을 더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는 사모심을 복이라 하시면서 하늘의 부요로 배부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5:6)

가나안에서 큰 기업을 차지한 유다 지파나 요셉지파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갈망(desire)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 갈망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 본 시편입니다. 첫째, 그는 누구를,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하나님 곧 주(Lora)를 사모하며 갈망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사모했습니다. "네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요11:40)" 는 약속을 믿고 주를 갈망했습니다. 그 분만이 나의 도움이 며 나의 피난처 이심을 믿고 구한(7) 이 사모심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어디서 갈망했습니까? 물이 없어 메말라 궁핍한 유대광야에서 주를 찾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광야에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은혜를 사모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드리며 광야를 성소처럼 생각하고 사 모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나아 간 것입니다. (시42:) 광야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찾는 자는 놀라운 부요를 경험합니다. 셋째, 갈망 후, 그에게 찾아온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영혼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체험입니다.(3,5) 그리고 주님의 철저한 보호를 체험했습니다. (8) 이 은혜를 맛 본 그는 주를 평생 사모하겠다는 소원으로 충 만했고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원천의 복, 하늘의 복, 젖먹이의 복, 태의 복으로 충만한 요셉 복 (창49:25)의

근본이고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기 위 해 현재라는 세상  
광야에서 갈망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진 정 복있는 자입니다. 주님께  
대한 목마름의 은혜를 회복합 시다

Those who long for the Lord (Psalm 63:1-11) 2006. 12.13

One of the pitfalls we can easily fall into in our religious life is the pursuit of more comfort. However, the Lord calls the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a blessing and promises to fill us with the riches of heaven. (Matthew 5:6) If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is widely publicized about the tribes of Judah and Joseph, who occupied a large inheritance in Canaan, it is that they had great desires. This psalm sings of the grace of this longing. first. Who and what did he long for? I longed and yearned for God, the Lord (Lora). He longed to see the power and glory of the Lord. I believed in the promise, “When you believe, you will see glory (John 11:40)” and longed for the Lord. This longing, believing that He alone is my help and refuge (7), is an important element that modern Christians must have. Because this is proof that you possess eternal life. Second, where did he long for it? He sought the Lord in the desert of Judea, dry and destitute for lack of water. Moses longed for grace in the wilderness of Midian, and Paul longed for grace in the wilderness of Arabia. He gave effort and sacrifice and longed for the wilderness, thinking of it as a sanctuary. It was like a thirsty deer going to a stream in search of water. (Psalm 42:) Those who seek the Lord in places like the wilderness experience amazing wealth. Third, what was the grace that came to him after his longing? He achieved, in a word, soul satisfaction. This is an experience of love. (3,5) And I experienced the Lord's thorough protection. (8) After tasting this grace, he was filled with the desire to long for the Lord all his life and was happy to

dwell in the hands of God. Those who are filled with the spirit of longing in the wilderness of the present world to enjoy the blessings of Christ, the root and substance of Joseph's blessing (Genesis 49:25), which is filled with the blessings of the source, the blessings of heaven, the blessings of infants, and the blessings of the womb, are truly blessed. This is the one who exists. Let us recover the grace of thirst for the Lord

본문은 원수의 위협을 당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요청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애매하고 까닭 없는 고난이 세상의 성도에게 물려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만이 이 위협을 이길 수 있습니다. (10) 하박국 선지처럼 (합3:) 다윗 역시 아무 열매 없는 지경에 처했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을 자신의 피난처요. 구원의 길로 삼은 의인의 길을 체험했습니다. 첫째. 다윗은 극도의 위협상태에 떨어졌습니다.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사형선고 받은 사람처럼 매우 절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은밀한 중에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워놓고 쓴 화살처럼 심한 독설로 욱하며 철면피와 같은 담대함으로 공갈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외적 원수도 위험하지만 그를 낙심과 교만에 넘나들게 하는 요동하는 마음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인을 친히 심판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전체 기도서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의 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여 만 천하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여 약속을 참아 기다릴 때 기이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셋째. 섭리적 고난을 당할 때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기에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단 받아 쓰임 받는 생애를 산 것처럼 우리역시  
하나님 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의 때에 더욱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인 내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 니다. 2000여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큰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 룬 것입니다. 성탄절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다윗의 승리의 비밀을 터득합시다.

The life of a righteous person (Psalm 64:1-10) 2006. 12.20

The text is David's prayer requesting God's protection and salvation while  
being threatened by enemies. It is very natural for vague and causeless  
suffering to come upon the saints of the world. Only a life that rejoices in God  
like David can overcome this danger. (10) Like the prophet Habakkuk  
(Habakkuk 3:), even though David was in a fruitless situation, his heart that  
rejoiced in God was his refuge. He experienced the path of the righteous,  
which he took as the path to salvation. first. David fell into a state of extreme  
danger. He was anxious and fearful, like a man condemned to death. The  
reason is that the wicked planned to kill him in secret and never stopped  
threatening him with the boldness of a fierce man, cursing him with harsh  
words like bitter arrows. The external enemies that tormented him were  
dangerous, but the turbulent mind that caused him to fall between  
discouragement and pride was more fatal. So, the one who overcomes the  
desires of his flesh is the true winner. second. God Himself judges the wicked.  
The word “but” in verse 7 changes the direction of the entire prayer. By  
allowing Himself to fall into their blood and judging the wicked, He revealed  
Himself as God to all the world. He leads everyone to a point where they fear,  
proclaim the work of God, and think deeply about God. God's wisdom is

ahead of all things, so he receives marvelous grace when he takes refuge in him and waits patiently for his promises. You will see God dramatically change history. third. When facing providential suffering, the righteous must believe in God's promise, be patient, and wait for their time. David's suffering had a clear meaning because it was an event permitted by God. Just as he lived a life of refinement and use, we too will be able to glorify God when we persevere with a more humble heart during times of suffering according to God's will. The birth of Christ over 2,000 years ago was no exception. The work of salvation was accomplished by traveling through this great tunnel of suffering. During the Christmas season, let's learn the secret of David's victory in rejoicing in God.



시편 65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복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복이라 하는 부귀공명장수도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 곧 예수 잘 믿는 마음에 임하는 것을 성경이 보장하지만(잠3:1-5) 더 근원적인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에 우선권을 두고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엡1:3) 전자는 상대적이라면 후자는 절대적입니다. 다윗은 이 복을 체험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첫째. 이 복은 죄 사함으로 시작됩니다.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엄습하는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다윗도 자기를 덮는 죄의 슬럼프에 빠졌다가 벗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일생 중 살인과 간음 외에도 매일 일어나는 유혹과 시험을 받았을 때 오직 우슬 초(보혈상징)로 정결함을 받은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용서받은 체험은 진정한 회개로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요일1:9)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의식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용서함 받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이 복의 다음단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리로 나가는 일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이르는 데는 3중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창세전에 선택받고 둘째, 주님의 부르심으로 초청받아 셋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4절에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이란 외적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과 선하신 성품이 성령을 통해 알려진 감동과 만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 신령한 복의 골자입니다. 셋째. 이 복은 모든 복을 포함하는 원천적 복임이 하나님을

앞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를 따라 구원받은 일차적인 복은 그의 구체적인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산과 바 다의 흥용함과 바다 물결과 만민의 환화(슬픔)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는 다스림을 본 것입니다. 징조와 땅과 곡식, 받고 랑, 단비 기름, 초장 그리고 작은 산을 자상하게 다스리시는 하나이의 상단과 후면과도자비의 영호의 하계, 2의 건강과 형통의 복과 같은 것입니다. (요삼1:2) 한 해가 저무는 때 에 하나님 아는 체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Are you blessed? (Psalm 65:1-13) December 27, 2006

When we read Psalm 65, we gain eyes to see a world of true blessings. Although the Bible guarantees that wealth, fame, and longevity, which the world calls a blessing, comes from a heart that fears Jehovah, that is, a heart that believes in Jesus (Proverbs 3:1-5), we live with priority on the more fundamental spiritual blessing. This is a believer. (Ephesians 1:3) While the former is relative, the latter is absolute. David experiences and longs for this blessing. Spiritual blessing is a life of dwelling in the garden of God and being satisfied with God. first. This blessing begins with the acceptance of sin. In verses 1-3, David praises God because the overwhelming sin has been removed. Godly David also experienced falling into and then coming out of a slump of sin that covered him. During his life, when he was subjected to daily temptations and tests, including murder and adultery, he showed by example that he was purified only with hyssop (a symbol of the precious blood). His experience of forgiveness was the gift of true repentance. (1 John 1:9) He experience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his sins and forgiveness through faith

in the merits of Christ. second. The next step in this blessing is to move into a position of satisfaction with God. A three-fold event takes place to reach this blessed position. Firstly, by being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secondly, by being invited by the Lord's call, and thirdly. He goes out to a place of fellowship with God. This is referred to in verse 4 as a person who comes close to God in the courts of God. Here, "the beauty of God's temple refers not to external decoration, but to the emotion and satisfaction of knowing God's truth, love, and good nature through the Holy Spirit. The experience of knowing God is the essence of spiritual blessing. Third. This blessing. The primary blessing of being saved according to God's righteousness is revealed to be the fundamental blessing that includes all blessings: the ferocity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the waves of the sea, and the sorrow of all people. ) I saw the reign of silence through the word, and the health of the upper and lower sides of Hanai, who kindly governs the land, grains, rainforests, rainforests, pastures, and small mountains. It is the same as the blessing of prosperity (3 John 1:2). I hope that you will be filled with the experience of knowing God as the year comes to an end.

[ The end of Living Stream Book 10 (2006)]

Soli Doe Gloria

